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박사학위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문화적 가치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김 철 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문화적 가치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ltural Value of Taekwondo in the
Post-Corona

2023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김 철 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문화적 가치 방안 연구

지도교수 윤 오 남

이 논문을 이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김 철 민

김철민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용인대학교 교수 양진방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경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영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계행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윤오남 (인)

2023년 0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문제 및 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5
5.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코로나 상황(팬데믹)	8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배경과 특징	11
3. 태권도장(Taekwondo gymnasium)	13
4. 문화의 이해	17
5. 태권도 문화의 이해	28
III. 연구방법	39
1. 문헌 연구	39
2. 조사 연구	41
3. 연구의 진실성	42
4. 연구의 윤리성	43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44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44
V.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문화	49
1. 태권도 문화 변천과정	49
2.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태권도 문화의 변화 사례	60
VI.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현장	63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가치 방안 심층면담	63
VII. 결론 및 제언	81
참고문헌	83

표 목 차

표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1
표 2. 태권도, 코로나 단어를 통한 단어 범주화	45
표 3. 태권도, 포스트 코로나 단어를 통한 단어 범주화	46
표 4. 태권도 문화 단어를 통한 단어 범주화	47

그림 목 차

그림 1. 비대면 운동 적용	61
그림 2 온라인 대회 및 캠페인	61
그림 3. 메타버스 수료식	62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Value of Taekwondo in the Post-Corona

Kim Cheol-Min

Advisor : Yoon, Oh-nam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propose policy measures to develop and revitalize Taekwondo as a cultural industr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way of dealing with sports or culture according to the post-corona era. These proposals will serve as a foundation to continuously explore ways to develop Taekwondo appropriate in the post-corona era.

In order to derive the resul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concept and scope of Taekwondo training and cultural value policies were analyzed, and inductive category analysis was us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hile observing the ethics of the study.

In order to identify various prior studies and contents tailored to the corona era, the basic concepts of Corona are listed, and words including taekwondo are derived from books, academic research materials, corona, post-corona, and pandemic words to categorize terms.

The cultural aspects of Taekwondo were divided into mental culture and

material culture, and examples of changes in the times were examined.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study the difficulties and cultural values of Taekwondo in the post-corona era and to find alternatives.

In the categorization of words according to the topic of taekwondo in the post-corona era, post-corona and taekwondo appeared negatively, and the difficulties in taekwondo, the grassroots of taekwondo culture, and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KUKKIWON, KTA, WT, TPF) mainly focused 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post-corona era.

First, the elements that first appeared in taekwondo in the post-corona era were online competitions, individual practice methods, and online education methods, and there were misconceptions abou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new types of online competitions. The cultural views were more diverse, but for fundamental stabilization, it was said that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ekwondo arena is taekwondo culture. Second, in the detailed factors of Taekwondo culture in the post-corona era, it is divided into mental culture and material culture, and the various transition processes are based on history. Concentrate on and preserve the classic roles of the past.

Third, in the in-depth interview at the post-corona era Taekwondo field, it was said that the time to overcome the pandemic is the time to apply new educational methods and to apply to various cases such as the operation of a quota system that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rainees. As it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 gyeorugi, and demonstration, a new Taekwondo culture must be formed.

The post-corona period is a period that has not yet stabilized and is progressing. In this situation, various methods are applied, and opinions that need to be applied in various ways should be collected for the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aekwondo culture. If categorization is carried out through this collection process, a new type of cultural case may appear, so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태권도라는 단어와 함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어느 특정 단어나 요인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와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각자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태권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원리 이해를 위해 물질적, 정신적의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하려 한다(김나혜, 2018).

태권도에 대한 문화적 의미로는 1997년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문화로 선정되어 문화적 가치를 대표하였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가 선정되었다(연합뉴스, 2017). 이후 대표적으로 태권도는 2018년 국기(國伎)로 인정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태권도를 스포츠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라는 인식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과 행동 방식으로써 구성원들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하는 총체적 산물이라 하였다(심광현, 2003). 다수의 참여와 호응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로써의 가치와 방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과 탐색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태권도를 알고 참여하는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수련 경험이 있으며 충분히 태권도만을 이용한 문화 형성 및 가치가 인정받고 진행되어지고 우리나라 대표 무도로써 학문적 가치도 인정되어 대학에서 전공과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적 가치로써 중요한 논점으로 문화의 구성과 범

위에 대한 내용이며,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며(김동식, 2005), 태권도는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였다(김나혜, 2018). 문화는 해당되는 사회적 상황을 대변하며 시대적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하였으며(정철현, 2005), 하나의 범주으로써 일반화 하거나 차이를 비교하기 보다는 차별성과 배타성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조수동, 김주완, 이강화, 이윤아, 2003).

태권도는 문화가치로써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대 정서와 시대상을 반영하고 내적 외적 변화들에 주목하면서 여러 문화적 현상들을 수용하며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문화적 정형화적 논리가 부족하여 기관이나 지도자들에게 잘못 전달되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잘못 계승된다(김나혜, 2018).

태권도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였는데 2017년 세계 태권도연맹(WT)에서 개최한 비치 태권도 대회에서는 상의를 탈의하고 품새 경기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견해가 모두 존재하였던 것이다. 태권도를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변화적 시도와 무예성이 손상되었다고 하였다. 어느 것이 옳은 결정이고 따라야 하는건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다양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겨루기는 기존 점수 획득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고난이도 발차기를 통한 대한태권도협회(KTA) 주관의 “파워태권도” 경기 방식도 하나의 경기력 변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태권도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널리 보급되어 있다. 올림픽 정식종목은 지속적으로 채택되어 겨루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태권도를 기본으로 한 연구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실제 태권도 관련 연구가 약 10,000건 이상(RISS 검색, 2022)으로 축구 7,156건(RISS 검색, 2022), 야구 4,578건(RISS 검색, 2022)으로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는 단연 높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높은 단계인 전세계 팬데믹이라고 경고하면서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안내하였다. 그렇지만 전 세계는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위기에 대해 발병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였다(강철, 2020; 김우주, 2020; Tyler, 2020). 스포츠 분야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으며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들이 모두 중단되어지거나 연기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김현중, 2020). 그 중 체육도장업은 81%의 타격을 받아 실내운동 스포츠로써 매우 큰 감소를 보였다(허영준, 2020). 코로나로 인해 전국의 태권도장들의 휴관으로 인해 태권도 수련생이 약 40%이상 감소한 태권도장이 64%에 이르고(김동석, 2020) 확진자 발생등으로 인해 임시휴관 경험이 비일비재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코로나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일선 태권도장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60억 규모의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태권도 수련 쿠폰과 수련생들의 복관 지원사업 및 지도자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과 운영을 위한 태권도장 임대료 및 공공심사비 지원등의 지원책을 요청하였다(장민호, 2020).

코로나는 태권도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장의 운영부터 흔들리게 했으며 실제 변화를 많이 주었다. 이러한 감염 상황을 대비하고 또다른 도약을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패러다임을 적용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활용과 중요성도 인식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스포츠를 즐기는 풍경과 문화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우리가 더욱 발전 시킬 수 있는지를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고민과 발전방향 모색은 결국 태권도의 다양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스포츠를 대하거나 문화를 대하는 방법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태권도를 문화산업으로써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아보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제안들이 토대가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태권도 발전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게 하는 것이다.

3.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 문제 1

코로나 이전 태권도 문화산업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포스트 코로나 이후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로의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 문제 3

포스트 코로나 이후 태권도장 수련의 방법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연구문제 1-1. 코로나 이전 태권도 문화산업의 구성요소 탐색
- 연구문제 1-2. 코로나 이전 태권도 문화산업의 구성요소 범주 및 구성
- 연구문제 1-3. 코로나 이전 태권도 문화산업의 구조 탐색 및 변천과정

- 연구문제 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문화의 활성화 방안 탐색
- 연구문제 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문화적 가치 정책방안 탐색

- 연구문제 3-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장 수련방법의 방안 탐색
- 연구문제 3-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장 활성화 방안 탐색

2) 연구방법

연구의 학문적 이해를 위해 중요 변인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장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고 “II. 이론적 배경”에 제시하였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장 활성화 및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정책 방안을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V.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문화”에 제시하였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장 활성화 및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정책 방안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VI.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현장”에 제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인 태권도 문화산업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입장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선행 연구에 대한 해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제한하면서 해석에 집중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심층면담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 및 다양한 면담을 진행하지 못해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집중하였으며, 태권도장 및 태권도 문화산업의 구조 및 내용에 명확성을 갖게 하기 구조적 절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전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태권도장과 태권도의 문화산업으로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5. 용어의 정의

1)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코로나는 감염병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이후의 대한 어떤 시점 이후를 의미하는 단어 포스트(Post)를 사용한 합성어로서 팬데믹 이후의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일상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대변화를 의미한다(이은적, 2020 ; 임정수, 2020; Cahapay, 2020; Jones & Sharma, 2020).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는 팬데믹 이후만을 의미하기보다는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변화까지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와 다른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미래에 대해 포함시킬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였다.

2) 태권도 문화

일반적 문화의 의미로써 집단이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동의 인공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태권도 문화는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관련되어진 모든 인간의 활동을 의미한다(김나혜, 2018).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낸 산출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태권도장의 변화 등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태권도문화의 개념에 대해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가변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코로나 상황(팬데믹)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시 의사 리원량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폐렴 증상의 확진 환자 발생내용을 단체대화방에 게재했으며, 동료 의사와 함께 위험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알리며 우한시의 원인미상의 폐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밝혔다.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의 수산시장은 수산물 뿐 아니라 다양한 야생 동물도 거래되는 시장으로 야생동물의 감염의 원인 가능성으로 알려졌으며, 중국과학원 산하 우한 바이스러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2003년 유행한 사스(SARS)와 비슷하며, 박쥐에서 나타난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연구논문을 바이오 아카이브(bioRxiv)를 통해 공개했다(정권혁, 2021).

WHO 세계보건기구는 6단계 과정으로 세계적 범유행까지 인간의 첫 감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동과 관련해 구분지었는데,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동물 간 전파에서 일부 사람에게 감염, 3단계는 사람 간의 감염이 증가한 상태, 4단계는 나라 간의 감염이 급속 확산, 5단계는 최소 2개국 이상에서 질병 유행, 6단계는 대륙 간 전파를 통해 추가적인 감염 발생한 상태로 팬데믹이다(정권혁, 2021).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전염병 최고 경고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팬데믹은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이다(이용환 2020). 1986년 홍콩독감에 이어 2009년 신종플루, 이번 COVID-19가 선언되었다(정권혁, 2021).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시로 novel CoronaVirus(2019-nCoV)로 명칭을 사용하다 2020년 2월에 공식 명칭을 코로나 19로 발표하였다.

코로나 19는 직접적인 전염과 간접적인 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적인 전염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물방울 속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 호흡기에 들어가서 전염되는 것을 말하며, 접촉자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질 때 바이러스가 점막으로 침투해 감염된다. 간접적 전염은 전염된 사람의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이나 물건 표면 등에 묻어 접촉한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져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보건복지부, 2020).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가는 중국 여성 관광객이었으며, 본격적 집단 감염은 31번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부터였다. 코로나 19 증상이 있음에도 의료진의 검사 요청을 거부한 채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면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김윤호, 2020).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며 국민의 불안의 커졌으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약국이나 마트 앞에 줄이 이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이용환, 2020). 집단발병이 일어나자 전국의 의료진이 자원봉사에 나섰으며,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비롯한 119 구급대원 등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고, 줄서서 대기하는 방식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로 차 안에서 검사도 가능해졌다. 이동형 음압 장비를 갖춘 진료소가 생기는 등 상황에 다양하게 대처하여 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였다(이용환, 2020).

정부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에서 코로나19를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고, 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정문섭, 2020).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정부는 대응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코로나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변화 조정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방역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환자의 발생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발적인 감염과 완화가 반복되는 단계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같이 유지하며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과

모임 행사를 허용하며 학교 등 교육시설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국내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단계로 지역사회에 지속적 확산이 된다. 환자 발생을 1단계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과 외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단계이다. 모임과 집단, 행사는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이상 모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다중이용 시설이 제한되고 공공시설과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단계로, 급격한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계이다. 필수적인 사회활동 및 경제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최대한 지에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이상 대면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고, 필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제한 및 중단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 또는 휴교 및 휴원하는 단계이다(보건복지부, 2020).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 2주에서 주 정도로 유행정도에 따라 조치정도를 조정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채택하여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 및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국민행동 수칙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하여 공공장소 및 집단시설, 다중이용 시설 등에 환경 소독과 일상적 소독을 시행하였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배경과 특징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12월,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19(Covid-19)를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으로 규정하였다. 인류는 예상하지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 Covid-19)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국가 대부분은 섯다운(shut down; 영업 및 가동중지)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의 대표인 두 나라 중국과 미국을 향한 외교와 무역정책이 변화하는 등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김용섭, 2020; 윤경우, 2020).

교육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교육기관들은 휴교령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수업을 대체하여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대대적으로 마련하였다. 형식교육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였고, 박물관과 미술관 같은 문화예술기관들도 공연과 정신 관람, 문화예술교육 등 실내 문화활동을 대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들을 참여시키고, 문화예술교육과 관람객의 연결 방식을 고민하게 되며 참여의 개념에 질적 향상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을 펼쳐 사람간의 접촉의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비대면 활동을 선호하게 되었고, 오프라인에서 접촉 활동 대신 온라인 접속으로 기존 활동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언택트(Un-tact; contactless) 문화가 확산되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 간의 고리를 참여와 연결로 이어주려 하는 온택트(On-tact)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확대되고 참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전

디지털 시대와 세계화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며, 시대적 요구이자 사회적 과제로 해결과정을 바라봐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제기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사람들 간 소통 및 상호작용에 대한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참여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또 세계화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 개념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면서 사회문화 전반에 참여적 문화(Participatory Culture)가 사회적 요구 나타남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태권도장(Taekwondo gymnasium)

1) 태권도장의 개념

태권도는 신체활동을 통해 몸을 보호하고, 수련을 통해 원만한 사회생활과 필요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전인 교육이다. 미완성된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육성하며, 수련을 통해 인격의 완성과 행복한 생활의 영위를 위해 건전한 정신 및 육체적 발달 위한 역할을 한다. 개인이 직접 수련하는 인간 교육의 한 분야로 개인의 인격 완성을 위한 심신 수련이며 수련자의 발달을 촉진하고 조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2011, 김수완).

정창근(2001)에 따르면 태권도장의 수련은 정서적, 지적, 육체적 성장 발달이 촉진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인간의 파괴본능, 공격적 욕구를 정화시켜 감정 제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였다. 태권도장은 신체적 성장발달 및 정신력 배양, 감정 제어를 통해 인격을 형성하는 장이다. 과거의 태권도장은 국가, 스승, 선배에 한 예의를 갖추었다. 미완성된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본질에 충실하였으나 현재의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며, 태권도뿐 아니라 체육활동이나 흥미를 바탕으로 한 교육서비스의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조항용, 2015).

2) 태권도장의 구성요소

태권도장의 요소는 지도자와 장소, 시설 및 환경, 수련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수련생에게 지도자나 시설은 수동적 의미라면 교육프로그램은 능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현성, 2008). 이 요소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수련생들이 만족을 느끼며 도장을 효율적으로 경영 가능하다.

(1) 지도자

지도자는 수련생에게 사고체계와 행동양식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태권도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도자의 교육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지도자의 행동, 지도방침, 지도방법, 생활태도, 말씨, 사범의 유형 등 수련생의 직접적으로 전인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김상순, 1999). 태권도 교본(국기원, 2006)에서 훌륭한 태권도 지도자에 대해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세 가지면의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인격적 감화자와 탁월한 태권도를 구사하는 능력의 소유자, 합리적 지도력의 소유자라 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격적 감화자이다. 태권도 지도자이기 전에 태권도를 수련한 하나의 인격자로 심성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한다. 또 실천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반성하고, 향상을 도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도덕적인 가치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교양, 통찰력, 성실한 마음, 너그러움 등은 필히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둘째, 태권도 구사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여기서 태권도 구사능력에 대해 알아보면, 태권도 기술과 정신뿐만 아니라 이론지식을 쌓아 풍부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합리적인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적절하나 수련환경과 체계적인 수련계획, 이상적인 지도방법 및 전략 등을 갖춰 수련생들의 신체적 발달과 욕구, 흥미, 태도와 신념, 가치관 등에 관계되는 정의적, 지적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자적 자질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 지도를 위해 수련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와 흥미, 습관, 지식 및 경험 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이다.

(2) 장소

태권도장에서 장소는 위치로, 수련생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지리적 장소를 나타낸다. 태권도 시장에서 장소는 태권도와 관련된 교육서비스 등을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도자의 역량이나 수련 프로그램, 시설 등이 좋아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수련등록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전익기, 윤정옥, 양현석, 문광선, 홍일화, 2016).

또, 장소는 결정되고 쉽게 변경이 어려워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해야하며, 수련생에게 접근이 쉬운 위치로 해야한다(전익기 등, 2016). 신중해야하는 만큼 태권도장의 위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접근이 용이한 점과 주변환경의 특성을 살펴야 하고, 다른 시설과의 분배 가능성이다(김은칠, 2001). 주변환경의 특성으로 인한 소음, 악취, 교통, 시설 공동 사용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3) 시설

시설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수련생이 수련하는 적합한 용구 및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수련환경은 수련생이 수련하는데 있어서 흥미와 동기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국기원, 2012). 또한 수련자의 개인능력을 초대한 발휘하게 하므로 수련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도자의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태권도장 시설은 수련생에게 중요한 선택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태권도장 경영자에게는 많은 수련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시설은 사무실과 수련시설, 화장실, 탈의실, 외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정권혁, 2021).

체육시설을 선택할 때 시설의 외형성과 쾌적함, 편리성에 영향을 받게되며, 태권도 수련시에도 시설의 전문성과 다양화, 고급화는 수련생의 높은 만족과 지속적인 참여도를 높여준다. 그렇기에 수련생의 입장을 고려한 안정성, 쾌적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설과 기술 및 장비의 개발은 시설이 환경친화적 접근과 미래지향적 고효율과 고수익을 위한 경영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김치조, 1993). 다양한 수련생의 변화와 전문화된 시설욕구에 적응하기 위한 태권도장의 시설 설계의 유연성을 극대화 시켜 부대시설과 기능을 조화 이룰 수 있는 효과적 시설개발 전략의 필요성이 있다(김수잔, 양성국, 1997).

(4) 교육프로그램

태권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수련생의 체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 및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수련생들의 효과적이고 합리적 체육활동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태권도에 대한 참여도 증진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이천인, 1998).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은 태권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업의 총체적 개념이다. 단일 운동종목 그 자체로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 내용 및 방법, 진행절차와 다양한 운동 종목을 하나의 활동 단위로 수행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계획과 진행절차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임번장, 1993).

손성도(2006)는 태권도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계획성을 내포하며 수련생의 교육의 시작과 끝이 일관성 있게 계획 및 원칙에 따라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태권도 프로그램은 고정적이고 정적이며 사회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다면, 현대의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발전성이 내재되어야 하고, 수련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며, 흥미와 동기부여를 함에 있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임번장, 1993).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적 경영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적 프로그램은 예절교육과 기술교육, 기본동작, 겨루기, 품새, 시범 등이 있으며, 경영적 프로그램은 체육교실, 캠프, 게임 등이 있다(이종천, 2001).

4. 문화의 이해

1) 문화의 개념

문화는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Tylor(1871)는 문화에 대해 가장 먼저 정의하였는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된 능력과 습관의 복합체라고 정의하였다. Williams(1958)는 문화는 가족구성, 사회관계를 표현 및 통제하는 구조이다. 또 사회구성원들의 특정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포괄한다고 하였다. 또 Nixon & Frey(1996)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독특한 삶의 양식이라 하였다. 어느 특정 사회에서 필요한 기능과 재능, 역할, 신조, 목적, 규범에 관한 지식 및 사물들로 구성된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문화는 자연적이지 않으며 인간이 생산해 낸 인위적인 것이다. 심광현(2003)은 문화의 개념을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행동방식이라 하였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유하고 배우는 총체적인 산물로 정의하였다.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호, 사회, 대중문화, 예술 등 하위문화를 모두 아우른다. 물질적이기도 하며 정신적인 삶의 모든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는 광범위한 개념적 범위를 갖기에 유사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개념들의 이해 과정을 통해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문화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개념들 중 먼저 문명이 있다. 문명은 인류가 거룩한 물질적, 사회 구조적, 기술적인 발전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2017), 문화는 인류가 산출해 낸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고 문명은 주로 물질적, 기술적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이다. 사회의 정의는 같은 무리끼 모여 이루는 집단을 의미하는 말로(국립국어원, 2017), 인간의 군집을 말한다. 이는 인간만의 특성은 아니며

개미나 벌, 고릴라 등 동물들도 군집단위로 살아간다. 여기서 동물의 군집과 인간의 사회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사회는 무리를 지으며 나타나는 고차원적 조직화를 의미한다(모이세이 카간, 2009).

고차원적으로 약속되고, 조직화되는 형상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로, 문화가 제외되는 사회는 동물의 군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해 무리를 이루는 것이 사회라고 한다면, 문화는 이 관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산출물, 실재 등이다. 사회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면, 문화는 주로 실현 과정을 분석한다. 문화와 사람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간의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인간의 사회와 동물의 군집을 구분하는 중점은 문화적 요소라 설명할 수 있다.

문화는 사회관계를 형성하거나 이어주며, 이어진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문화는 특정한 인간의 집단이나 한 지역, 나아가 국가의 생활 양식 및 행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며, 본질에 대한 판단으로 의미한다. 김이수(2005)는 문화는 시대의 편리성으로 상징되는 생활양식과 무관하지 않으나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지적 등의 능력과 주위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2) 문화의 분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문화를 명료하고 세세한 범위 또는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생활하고 소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영역을 고려하여 문화를 이해하고 분류해야 한다. 문환르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물질문화(material culture)와 비물질문화(non-material culture)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물질문화에 대해 살펴보면, 물질문화는 경험적 문화, 기술적 문화로 문화적 요소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물질적인 것과 이것을 만들기 위한 기술의 문화가 물질문화이다.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일상용품이나 상품, 작품이 이에 속한다.

비물질문화는 물질문화와는 달리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구속하고 이끌어 간다. 비물질문화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사고양식 측면의 정신문화와 행동양식 행동문화이다. 먼저 정신문화는, 학문과 종교, 예술 등 내면적 가치를 고양하는 사고양식의 측면이고, 행동문화는 민습, 법, 원규 등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을 규정하는 차원이며 사회 제도도 이에 해당된다.

비물질문화를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면 관념적 표출문화와 제도적 평가문화로 나눌 수 있다. 관념적 표출문화는 사회와 자연, 초자연에 대한 가치와 태도, 신념, 지식 등을 탐구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와 홍익인간 등과 같은 전설 신화가 관념적 표출문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평가문화는 가족제도와 혼인제도로 사회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적 문화이다. 정치제도와 교육제도, 법률제도 등이 제도적 평가문화의 예로 들 수 있다.

Smith(1973)은 문화를 채용범위 기준 세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보편문화와 특징인 또는 특수한 상황을 연출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특수문화, 자유로이 선택하는 선택문화로 나누었다. 채용범위 따라 분류한 세 가지의 문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편문화는 일반적이며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진 문화이다.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 흔히 표현하는 보편문화이다. 같은 지역, 같은 시대의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시대의 구분화 지역의 구분이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문화의 보편성이 달라지지만, 대체로 국가별로 보편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군신화를 듣고 알고 있으며, 명절인 추석과 설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과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특수문화는 성별, 계급별, 직업별, 연령별, 집단별로 존재하며, 계층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수한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군대는 일반 직장문화와는 다르며 부대별로 해병대, 공군, 육군, 해군은 각 각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는다. 일반 직장과 벤처기업의 근무 환경이 다름에 따라 문화가 다르

고, 인터넷의 채팅은 맞춤법을 무시한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선택문화는 다양한 문화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패션, 음악, 독서 등 다양한 문화활동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시대의 유행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등 선택할 수 있는 문화이다.

문화를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문화 구성 요소의 크기, 위치, 성격으로 구분되는데 문화요소, 문화복합, 문화유형이 그것이다. 문화요소는 문화의 최소단위이다. 문화품목과 문화특질로 구분하기도 하며, 문화품목은 단일 형태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문화특질은 문화품목이 가진 특성이다. 야구공을 예로 들어보자면, 야구공 자체는 문화품목이 된다. 야구공을 프로야구에서 사용하면, 스포츠의 문화특질 갖게된다. 같은 야구공이 어린이 놀이에 사용되면 여가활동의 문화특질을 갖고, 진돗개의 훈련에 사용한다면 애견활동의 문화특질을 갖게 된다.

다음 문화복합은 문화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문화체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야구경기를 예로 들면 선수와 야구공, 배트, 글러브 관중, 심판 등의 문화요소가 결합된 문화복합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문화는 대부분 문화복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입학식과 졸업식, 방송, 만화 등도 모두 문화복합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형은 문화복합이 결합된 것이다. 프로야구를 예로 들면, 시즌별 야구경기, 챔피언 시리즈 등 문화복합이 결합된 문화유형이다. 이는 주로 제도로 나타나 제도복합이라고도 말한다. 가족제도는 혼인과 출산, 육아 및 의식주 등 문화복합이 결합된 제도복합이다.

문화의 내용적 분류는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며,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복합체인 측면에서 가치와 규범, 사물의 형태로 나뉘며, 가치(ideas)는 목표를, 규범(norms)은 절차, 사물(thing)은 일상생활에 향유하는 수단의 용구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적 문화이다. 이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합리적 사고에 따라 필요한 이념, 관계된 문화를 말한다. 인간은 목표에 따라 행동을 실행하

며, 목표 달성에 보상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행동에 집착하기도 하며, 행동으로 인한 미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행동은 목표의 의미 및 해석을 부여하는 관념체계이다. 이념체계의 특성은 가치적문화를 종합하고,, 규범문화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명감을 주고, 가식문화에 대항해 허위성을 폭로한다. 가치적문화는 인간의 인성을 통합한다. 이는 정식적 근거이자 집단의 복지에 관련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정의권, 구본행, 2003).

둘째, 행위의 준칙, 절차에 관한 문화를 규범문화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하여 타인의 행동을 기대한다. 규범문화는 인습적 규범과 법률적 규범, 도덕적 규범으로 구성된다.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이 적응 및 동조해야 하는 행동의 유형을 제시하고, 사회의 신분이나 계급적 지배관계가 반영된다. 규범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가치적 문화가 동원되기도 한다.

문화체계를 구성하는 영역은 여러 요소들이 상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획일화된 통합이 아닌 하나의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윤근섭, 김영기, 1994). 용구문화의 개선은 규범문화 보완이 필요하고, 때때로 가치문화의 수정도 요구된다. 또 가치적 문화가 변화하게 되면 규범문화의 소재도 변화할 뿐 아니라 용구문화의 배분 형식도 달라진다. 용구문화는 기술혁신에 의해 개선되며, 기술혁신은 규범문화의 지원없이 기대하기 어렵다(정의권, 구본행, 2003).

3) 문화의 기능

문화는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가지며, 인간의 생활양식 그 자체이다. 문화는 사회에 대해 다양한 작용을 하며 사회의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기능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기능

문화는 인간의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스스로의 행동기준을 제시한다. 이념적 가치를 사회구성원들과 공유하며, 구성원간 충돌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즉, 문화는 사회와 집단을 존속하며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문화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어떤 것이 올바르고,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어 사회를 제도하는 기능이 있다.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한다. 즉 개인의 깨달음으로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화는 사회와 집단을 유지하게 하는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제도에 속하고, 규범과 관습에 따르며 여러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간다. 사회 및 집단의 문화에는 이탈하는 사람이 축출되기 마련인데, 인간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 및 집단의 역사를 이해하고 승인되고 금지되는 행동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면, 표를 사기 위해 매표소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줄이 길게 서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킨다. 사람들 사이에서 새치기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문화는 사회 및 집단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며, 인간은 동일한 문화를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일체감을 느낀다. 이는 사회 시스템의 안전성을 증진시키며,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및 집단과 다른 집단을 인식하고, 차별화하며 문화적 동질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동질성으로 보다 높은 결속력을 가지고, 집단의 구성원으로 유지해 나간다.

문화의 정치적 기능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킨다. 또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이끌고 형성하는 통제 메커니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는 동질성을 확보하며, 이는 사회통합의 보이지 않는 고리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기능

인간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문화를 창조하였다. 자연환경에 대항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고, 자연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자연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인간은 문화를 통해 자연에 도전하고 자연을 변경, 개조하였다.

문화는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은 그 사회의 문화를 익히는 방법이며, 문화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행동양식도 변화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문화는 다양하게 변화하며, 그 변화에 사회구성원은 적응해 간다. 이처럼 문화의 사회적 기능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김나혜, 2018).

(3) 경제적 기능

문화는 인간의 삶의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한다. 인간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지식을 터득하게 하며, 이를 다음 세대에 전승시켜 축적시킨다. 이는 각국의 전통문화가 유지하고 전승되도록 하는데, 계속해서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문화의 경제적 기능은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 필요한 지식이 제공되며, 이 지식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 이로써 문화는 경제적인 기능 담당한다. 문화를 통해 제공된 축적되는 지식으로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전한다. 사회속에서 인간의 삶은 윤택해지며, 질이 높아진다. 문화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관련된 산업이 발전한다. 사회 경제는 성장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기술개발 및 새로운 산업이 발전한다. 문화의 경제적 기능은 물질문화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신문화에 영향을 준다. 최근의 문화 산업은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결합해 경제성장을 이룬다. 영화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자동차 산업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지역의 고유 특산품 개발 및 관광산업, K-POP 문화콘텐츠 산업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요즘, 상품에 문화적 가치를 접목하여 가치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김나혜, 2018).

(4) 심리적 기능

인간은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자부심, 그리고 안전과 보호를 받고 싶은 소속감 등이 있다. 문화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심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집단과 사회구성원으로 가지는 가치관과 태도, 행동 등을 공유하여 욕구들을 충족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 자국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국민,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 거리에서 선수들을 위한 응원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일체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애국심과 애향심, 동류의식을 통해 일체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문화의 심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박찬호를 응원하고, 미국 LPGA골프 대회에서 박세리를 응원하는 경우도 문화를 공유하는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는 집단과 사회의 동질성을 느끼게 하고 결속하게 하는 심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김나혜, 2018).

4) 문화연구의 방향

문화가 가지는 용어의 확장성이 있기에 학문화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처럼 기존의 학문으로 기준으로 가치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 기대는 새로운 학문의 형태와 새로운 시도, 인식이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문화가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 특정한 방법과 연구범위가 있어야 하지만, 연구 주제에 따라서 연구하는 방법은 다른 학문에서 차용하고 있으며, 문화적 관점에 대한 해석이 다소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해석은 주요 자산으로 여기지는 현대에 있어 중요

한 연구주제로 판단된다. 그러하므로 지속적인 학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건중(2000)은 사회 구성원의 일상적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변화된 역사적 조건의 요구이나 그 출발점을 ‘문화는 일상적이다’ 라는 명제에서 찾는다고 하였다. 이 명제는 문화적 행위와 그 생산물을, 인간이 정신적 능력의 예외 성취로부터 예술이나 문학 전통 속에 한정하여 보는 관점으로부터 일반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징적 행위로 확장하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복영, 2017).

Thompson(1990)은 총체적 삶의 방식의 문화 개념보다 문화들 간의 긴장과 갈등, 투쟁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적 의식이 존재와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문화를 연구해 온 학자들의 큰 업적은 일상생활에서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부각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역사적 근원을 이해하여 인간 사회의 산물이고 변혁이 가능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문화 연구의 핵심 논제라 할 수 있다.

5) 문화 구조주의

부분이나 요소가 어떠한 전체를 이루는 열개를 구조라고 한다. 구조는 일련의 요소들이 모여 전체를 형성한다. 요소 단독으로 소유하지 못한 새로운 특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요소들이 형성하여 나타내는 구조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본질을 바꾸지 않고 낡은 요소를 새로운 요소로 바꿀 수 있다. 본질적으로 상이한 현상들이 유사한 구조를 갖게되고 그 역도 성립한다. 구조의 변형 방식은 내적 관계와 같은 것으로 구조를 정의하며, 규칙성이나 안정적인 패턴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Chris Barker, 2009).

구조는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차 또는 형상의 반복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다. 구조는 체계와 유사한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구조와 체계의 큰 차이를 살펴보면, 구조는 문화와 역사, 풍습 전체에 드러나는 근거를 밝히는 과정이라(변칭자, 2008) 할 수 있고, 체계는 요소를 구성하는 전체를 의미한다. Piaget의 구조주의 이론 중 요소들이 주어진 체계 안에서 상호 관련된 관계 및 방식의 총체성을 구조라고 할 수 있다(김나혜, 2018).

문화는 사회의 여러 요소의 일상적 부분과 인간생활을 연구주제로 주목하기 있기에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 역시 특별한 연구 방법보다 각 연구주체에 맞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방법이 차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구조주의 역시 사회 연구에서 주 사용되는 이론으로 언어학이었다. 언어학에서 처음 발전된 분석 양식으로서 언어의 표면이 갖는 내면적 의미를 구조 관계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사회학의 구조주의자들이 사회현상이 체계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문화학에서의 구조는, 문화를 안전하고, 조직화하는 예측 가능한 규칙과 관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조주의는 문화를 분석하는 이론 중 하나이며, 특정한 사람들의 외부에 존재한다. 사회 문화적 구조와 예측 가능한 규칙성과 관련된 분석 방법으로 단순히 철학의 한 유파가 아닌 하나의 세계관으로 학문적 방법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구조주의 핵심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이 표층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심층은 구조화 되어 있다. 셋째, 분석은 객관적이다. 넷째, 문화는 용어과 같다. 다섯째, 구조주의자들은 행위자 개인적 특성보다 문화 시스템 역할 및 작용에 더 관심을 갖는다. 구조주의 관점에 대해 Jameson(1974)은 정신이 세계를 경험하거나 그 자체 본질적으로 무의미함에서 의미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용되는 조직화의 카테고리화 형식을 분명히 탐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화 구조 분석은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문화와 이데올로기, 사회

관계를 구조라는 과점으로 지각하고 분석하며, 기술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중 하나인 구조분석은 Tompson(1990)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그는 문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 사회구조, 시공간적 배경을 함께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착한 문화 개념을 구조적 개념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은 Tompson(1990)처럼 상징체계의 문화뿐 아니라 이것이 기초하는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문화가 몇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문화를 층위에 따라 현재적 문화와 잠재적 문화, 표층 문화와 심층문화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으로 구조주의 수준개념을 사용한 Swingewood(1998)는 문화가 생산하는 독특한 수준을 신생문화 수준, 잔여문화 수준, 지배문화 수준으로 규명하였다. 문화를 층위로 구별하는 것은 문화 가치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문화 요소별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고려한 문화 구조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문화를 연구자의 관점과 시각, 안목을 사용해 대주제와 하위주제 등으로 구분해 사용한 개념으로 태권도 문화 구조의 메커니즘을 연구자 관점으로 구조화해 분석하고자 한다.

5. 태권도 문화의 이해

1) 태권도 관련 문화의 개념

(1) 스포츠 문화의 개념

운동의 즐거움이나 본능적 경쟁을 찾는 인간의 욕구로 근거하는 스포츠는, 사람들간의 공유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욕구의 충족을 위한 개인 행동이 구체화된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문화는 스포츠 활동에 기능의 학습 및 전달을 하는 역사적, 사회적 유산으로 스포츠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박만건, 2003).

이석주, 김정주(1997)에 따르면, 스포츠는 인간의 활동에 가치 및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질서의 체계로 볼 때 고유한 질서에 의해 통제되는 문화의 현상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 사회에서 스포츠는 문화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체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놀이와 게임, 스포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며, 그 과정에 특정적 목적 및 규칙에 따라 일련의 체계를 지닌다(조동진, 1999).

스포츠 활동은 의미, 가치, 공통 질서에 따라 행해지며 가치적 문화를 형성하는 운동이다. 축구로 예를 들자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과 공을 차며 얻어진 득점은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게임을 이기기 위해 합리적 방법으로 기술 및 전략이 세워지고 행하며 특별한 용구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문화는 물질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성체계를 구분하였는데, 먼저 물질문화는 스포츠 시설, 용구, 의복 등을 포함한다. 비물질 문화는 스포츠의 관념, 사회적 관습, 전통 등으로 나타나는 행동적, 정신적 행태로 스포츠가 지닌 가치와 윤리, 전통을 포함한다(유정애, 김선희, 2007). 물질문화는 다시

행동문화와 용구문화로 구분되고, 비물질적 문화는 다시 가치문화와 규범문화로 구분된다.

조동진(1999)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행동양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스포츠 규범과 스포츠 기술이다. 이에 스포츠 규범에 따라서 스포츠의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규범문화는 비물질적 문화로 구분하고, 스포츠 기술과 관련 의식 등 행동문화는 물질적 문화로 구분하여 스포츠의 문화구성 체계를 수정하였다.

스포츠의 문화 구성체계에 따라 골프를 예를 들어 분류하면, 골프 클럽과 골프용품, 시설 등은 물질문화로 구분하고, 골프에 대한 가치관, 의식, 목적 등은 가치문화라 할 수 있다. 가치문화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포츠를 정당화하는 사고이며, 스포츠 수단목적 가치를 지닌다.

스포츠 문화의 구성체계에 따른 가치문화는 스포츠를 통한 심신의 성장 및 발달의 촉진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스포츠 참여의 과정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다(조동진, 1999).

스포츠의 다양한 문화적 해석 중에서 스포츠와 정치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탄(Sznaider, 2011)에 의하면 스포츠는 정치적 부분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문화도 이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정치 사회적 맥락과 맞물려서 본연의 의미를 잃거나 퇴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는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에 기인해 작동한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스포츠 문화 생성이 국민이 주체가 아니라 국가이기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스포츠 문화를 기획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적 이념을 스포츠를 통해 발현하고 나아가 성장과 발전이라는 소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가의 목적 및 목표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응하는 정치환경 속에 스포츠는, 정치 사회적 맥락을 따라 국가 의도대로 활용 되었다. 이렇게 활용된 스포츠

를 국민이 수용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 및 유지에 유익한 것으로 국민을 이해시켜 왜곡된 구조 안에서 일방적 주입과 수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스포츠 문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스포츠에서 매스게임(mass game), 국민 체조 등과 같이 집단의 동일한 신체 움직임을 강조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스포츠의 가치는 스포츠관에 따라 달라지나, 현대에서는 스포츠 그 자체로 긍정, 정당화하는 스포츠 목적론을 중요시 한다. 스포츠가 자립적인 가치를 지녀서 문화 특유의 인간성을 표현하고, 그 자체 가치 있는 것으로 학습되어야 한다. 스포츠가 수단적으로 정치적 맥락에 이용될 수 있으나 이를 지속적, 자발적으로 스포츠의 본래 긍정적 목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감시하며, 지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2) 무예 문화의 개념

무예는 전투를 목적으로 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서양과는 다르게 수련 및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문화이다. 무예를 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화현상 혹은 종주국의 입장을 고려한 대중문화, 체육문화에 대한 대안, 스포츠 문화, 고유 전통 문화의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

동·서양에 맨손 무술이 있었으나 문화권 특징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로 띠고 있다. 먼저 서양을 살펴보면, 체계화 및 조직화된 스포츠의 형태로 나타났다.

동양에서 무술은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문화의 특성에 따라 총체적 인간 움직임의 지향하였다(김홍식, 2009). 이것이 무도의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수련체계가 다름을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몸을 유형화된 형체에서 하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생각하였으며, 몸은 무형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동양의 무예는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인격 수양의 과정을 자체 목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양은 무예 문화는 객관과화 계량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서양과 동양 무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강유원, 김이수, 2008). 이처럼 각각 다른 문화에 영향을 받은 무예는 서구의 문화적 침략에도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되었으며, 각광받는 무예로 평가되고 있다.

Donahue(1994)는 현대의 무예를 싸움 수단 또는 호신술로 보는 것은 시대적 오류라 하였다. 무예는 기술적 효율성까지 포용하는 문화적 체계이며, 문화 및 철학, 이데올로기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매체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Donahue, 1994; Capener, 1998; 김이수, 2005).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경계가 무뎌져 동양의 전통 사상을 강요해 무예를 수련하는 것은 현대 대중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동양무예는 기존의 체계적, 과학적이지 못한 점에서 공감할 수 없으나 문화를 전수하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길평(2001)은 동양의 무예는 총체적 실행의 차원에서 예수렁이 내재하는 스포츠의 원형이라 하였다. 기량, 깨우침, 단순한 싸움의 수단, 호신술보다 문화적 체계(Cultural System)로 문화 및 철학,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태권도는 스포츠화, 학문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방기술 외 대중문화에서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며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스포츠화 되는 과정에서 무예의 성질을 상실했다는 우려를 받았으나 수련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맞는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다.

무예 문화에서 무예와 무술, 무도의 용어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예는 기술이 실전적 가치를 넘어서 예술적, 미적 경지를 지향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으며, 무술은 기술의 실전적 측면을 강조, 무도는 기술적 측면을 넘어 정신적, 철학에 관점을 두는 의미라 할 수 있다(양진방, 1999).

조동진(1999)은 스포츠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를 바탕으로 무예의

문화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의 무예 문화는 무예를 하는 행위를 정당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고 일정한 행동양식을 가지며 시설과 용품, 의복 등 크게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비물질문화에 대해 살펴보면, 무예를 수련하는 목적과 이를 정당화하는 수단론적 관점의 가치문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덕적, 제도적 규범인 규범 문화가 있다. 무예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에 가치문화가 강조되고 발달되며, 이에 규범문화도 위계적이고 엄격하나 분위기로 나타난다. 가치문화 발달로 인하여 규범문화는 규율적 성향이 더 강했으나 무예가 스포츠화되면서 도덕적 규범이 약화되었고, 제도적 규범이 체계화가 되기도 하였다.

무예문화의 물질문화는 비물질문화를 기반으로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행동문화와 용구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행동문화는 무예의 기술과 예식을 말한다. 무예의 기술은 수련 뿐만 아니라 호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규칙 안에서의 스포츠 기술과 달리, 규칙을 벗어나도 무예의 가치 일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용구문화는 무예를 수련하거나 실제로 행동할 때의 장소, 이용되는 기구, 입는 의복 등이 있으며 이는 발전에 따라 개선되기도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개선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무예의 가치문화가 용구의 변화에 강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층, 중층, 심층의 각 층의 문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층문화는 물질 또는 물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사람이 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무예를 하는데 입는 도복, 용구, 그리고 무예를 행하는 도장, 상징적 성물, 우상 등이 속한다. 둘째, 중층은 사람이 무예를 수련하는 활동 및 행위, 행위화 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는 표층과 달리 드러나지 않으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현대의 무예에서 찾아보면, 경기규칙과 제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심층은 무형이고 내적이다. 쉽게 느낄 수 없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감춰져 있는 관념과 종교 등 등 사람의 의식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심층은 사람 자신에게 속하는 문화로 한 민족이나 한 군체의 심층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오랜 시간을 고찰하여 한다. 심층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각 중 관념 및 이념은 중층과 표층을 통해 밝힐 수 있는데, 이는 중층과 표층 가운데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기를 예로 들어보면, 국기는 물질로 표층 문화에 속하지만 무예의 수련생들이 ;국가에 대한 예 ‘에 대한 관찰로 무예 수련생들의 이념을 살펴볼 수 있다.

허건식(2002)에 따르면, 표층은 물질적인 것으로 도복과 용구, 도장, 우상 등으로 설명하였고 중층은 무예의 활동, 행위, 행위화 하는 방식 등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경기규칙과 제도 형이라 하였다. 심층은 가치관과 관념, 신앙 등으로 사람의 의식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였다.

즉, 표층은 운동형식을 말하며, 중층은 운동형식이 되는 기초적 단위의 동작을 말한다. 심층은 가치관 및 사고의 방식 등 운동형식과 동작을 지도하는 의식의 총화라 할 수 있겠다.

태권도의 기술은 공격과 방어의 겨루기 동작에서 창출되었다. 공격과 방어의 특성은 기본 특성이 되고 이것이 중층이라 할 수 있다. 중층은 일정한 모델이 되어 표층의 운동형식이 된다. 중층에 의해 내포의 층인 의식이 표현되고 중층은 의식에서 몸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무예는 다양한 외부의 문화와 융합하며, 그 가치관의 발전 뿐 아니라 다원적 문화에서 새롭게 융합시켜서 새로운 개척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태권도가 본질적 속해 있는 무예문화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문화를 표층, 중층, 심층으로 구분였다. 표층은 물질적인 것으로 중층은 행태적인 것, 심층은 가치관 및 사유적인 것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2) 태권도 문화의 개념

태권도는 손, 발을 이용해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 또 동작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심신을 단련하여,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 스포츠이다(국기원, 2017).

무예의 기술적 특성을 태권도에서 살펴보면, 태권도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

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떨어져 타격방식의 발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무예이다(송형석, 나채만, 2011).

태권도 발생초기에는 무예로서의 특징이 강하였으나 근대 이후 제도화 및 경기화되면서 스포츠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세계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태권도를 수련하는 태권도인의 규모는 2022년 8월 기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 단 취득 인원이 11,259,706명이고, 국내 등록도장이 9,849개에 달한다(국기원, 2022).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 낸 산출물임을 문화라고 할 때 태권도 수련생의 수는 태권도가 가지는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의 맨몸 무예의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부터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7회 연속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지정(성환희, 2017)될 만큼 태권도는 세계적 스포츠로 성장한 것을 보았을 때 태권도 문화는 다문화적 특징을 가진다.

태권도는 1971년 3월, '국기 태권도'라는 휘호를 받으며 한국의 상징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이경명, 김철오, 2004). 이후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문화 상징으로 한글과 한복, 김치, 불국사 등과 함께 태권도도 포함하였으며(박영길, 2012), 한국 문화의 소산, 문화 양식으로 태권도를 개념 정의한 경우가 이어져 왔다(김정록, 1986; 최영렬, 1988; 이경명, 2003; 세계태권도연수원, 2005; 임일혁, 2007; 오춘성, 문호준, 윤정욱, 양현석, 박중호, 2008; 서성원, 2009; 송형석, 나채만, 2011; 국기원, 2017). 이로써 태권도는 근원과 기원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한국의 문화로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태권도의 체계와 조직화, 스포츠화 및 세계화가 한국을 기본으로 한국인이 시도한 태권도는 한국의 문화임을 의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화는 집단 및 사회에서 그 안에 나타나는 공동의 인공적인 것을 말한다. 즉 문화는 태권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인간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태권도 문화를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질적, 정신적 산

출물로 정의하려 한다. 또 불면의 것이 아닌 태권도 문화는 끊임없이 창조되고, 변화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태권도 문화 구성요소를 파악하며 범주화해 문화의 층위 구분 기준에 입각하여 분류를 실시해 태권도 문화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태권도 문화의 역사적 흐름에 따른 개념을 정의할 때 주의가 요구되는데, 태권도사 중 가라테 영향에 대한 언급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반일주의와 최홍희 및 ITF 관련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는 반공주의, 태권도의 종주국만 강조하는 종주국주의를 비판하며 태권도 문화로서 외적인 측면만 평향되었다. 이는 내적인 측면의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되기 때문이다(김주연, 2009). 태권도 문화는 발생학적 관점에서 답습문화로 보기보다 현재 태권도에서 나타나는 개념 및 양상을 고찰해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태권도 문화는 선행된 문화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물질의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물질의 유형에 따라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구분하며, 문화의 개념에 따라서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태권도 문화 구성요소에 대해 목적이 있기에 태권도 문화의 형식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그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태권도 문화로 설명되는 요소들의 구조를 고찰하며, 요소간의 차후 연구에서 태권도 문화의 개념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태권도 문화연구의 동향

태권도 문화는 역사학적과 사회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문화라는 지칭이 있기 전, 태권도와 관련해 나타난 여러 현상에 대한 연구는 세분화하여 태권도 문화를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권도와 다른 무예의 문화를 비교한 연구와 태권도 문화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문화 변천 과정 연구, 문화적 차원에서 태권도에 대한 인식 연구,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관계 문화 연구, 태권도 문화 본질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고찰, 비판한 연구, 태권도 문화 전과과정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김영만(2011)과 박영길(2012)은 태권도 문화와 다른 무예문화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김영만(2011)은 태권도는 수박과 택견의 전통을 잇는 것과 무관하며, 우리 민족의 체형적 특성과 기질적 특성, 좌식 생활습관이 무예태권도에서 경기태권도로 발전하는 계기라고 설명하였다. 또 태권도는 무예 기능과 경기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며, 태권도 품새와 태권도 경기가 괴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박영길(2012)은 태권도 역사의 문화 교류설 관점에 대해 조명하였다. 보통 학자들이 중국과 일본을 비교에서 나아가 한국과 중국, 일본과 인도의 무예 문화까지 동시에 비교하였고, 이는 태권도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가치를 고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태권도 문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김학덕(2001)은 현대 스포츠의 태동과 특징이 태권도의 스포츠 특성과 어떠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문명화 과정이 나타나는 사회속에서 발견된 스포츠 종목으로의 태권도는 세속화와 평등성, 전문화, 관료주의, 정량화, 합리화, 기록의 요소를 갖춘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서동일, 2008).

한광령(2001)은 위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하였는데, 문명화 과정에서 대한태권도협회의 통합과정을 역사사회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의 발달과정 및 규칙의 발달과정을 이해하였다.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태권도가 문명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태권도 문화와 사회의 시대사와 비교, 고찰한 김이슬(2013)은 시대별 태권도 영화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영화에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태권도의 상황 흐름을 통해 변천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권경상, 이종영(2015)은 태권도 시범문화는 전통문화로의 태권도 지원정책과, 민간 외교정책으로의 지원정책,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남북교류의 태권도 활용정책, 또 태권도진흥법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정책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태권도 시범문화에 영향을 미친 정책을 알아보았으며, 정책에 따라 시범 문화의 변

화가 태권도 시범문화에서 공연 예술적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태권도 시범의 문화 콘텐츠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충렬(2014)은 외국인 수련자가 태권도에 대한 문화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화의 전파과정 및 문화의 변용 및 해당 사회에서 태권도가 작용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의사소통 현실 관계를 조명한 김학덕(2014)은 태권도계 의사소통 행위는 태권도 종사자와 가정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를 통해 정서적 문화를 양산해 왔으며, 문화적 가치의 규제 필요 사안에 대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외국 태권도 수련생이 한국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연구를 한 신종섭(2017)은 외국인이 한국 태권도를 경험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한국 태권도 메커니즘을 동의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류병관(1997)은 태권도가 경기화되며 훈련과 수련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나타나는 문화적 양태가 변화하고 다시 수행 및 단련의 문화로 변화해야함을 주장하였고, 태권도의 본질이 무도에 있고 스포츠화 된 태권도 문화의 변화에 경계하였다.

태권도가 세계화, 시장화를 거치며 태권도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의미로 작용하였고, 인간 중심적인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고 하였다. 태권도가 비물질적 운동의 연장선에서 본래의 모습을 형성하였다(김수정, 최성배, 윤여탁, 2012).

태권도 수련장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품새 위주에서 겨루기로 변화하고, 성인 태권도 수련생이 감소 등으로 태권도장의 수련문화가 변화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태권도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이미지 재고가 중요하다(김기석, 2009)

태권도 문화는 태권도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태권도 문화 양식으로 보며 태권도를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집단 및 사회속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제반 현상에 대해 알고 실천하는 과정을 사고하여 태권도 문화 및 현상을 분석적이고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기능을 갖는다.

한창효(2004)는 태권도 문화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품새와 겨루기, 사범, 도장, 경기 요소로 표층문화, 중층문화, 심층문화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태권도 문화의 중요성에 인지하고 태권도 문화 구조를 분석하려 한 첫 번째 시도로 그 가치를 둔다. 그러나 태권도 문화 구조 분석의 본래 목적에도 불구하고 품새와 겨루기, 시범, 도장, 경기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는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총체적 시각에서 태권도 문화 구조를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태권도 문화 요소로 수련 체계 및 형태인 품새와 겨루기, 장소의 개념인 도장, 경기를 범주로 분류해 표층문화, 중층문화, 심층문화로 층위를 구분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요소별 유사한 개념을 다른 층위에도 포함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 이후의 태권도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 가치 방안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탐색 및 구조분석에 대한 기초연구, 구조분석, 타당성 검증 이후 최종안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1. 문헌 연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태권도장 및 태권도 문화적 가치 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변화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1) 자료수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신문, 잡지, 보도자료, 학술자료, 단행본, 연구보서 등)이 있었으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완성도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 학술자료와 단행본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료 수집방법은 학술데이터베이스(DB)와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 중 중요 핵심단어로 “태권도 문화”, “코로나 태권도”로 우선 검색을 설정하고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세부검색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료 출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정보(RISS)와 국회 전자도서관,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의 학술검색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검색을 통해

(1) 문헌연구 및 이론연구

태권도 문화의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변천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근거해 이론연구를 실시하고 태권도 문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되어진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학문적 해석이 필요한 내용은 문화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주제로 추가 수집하여 검토 및 분석하였다.

(2) 귀납적 범주분석

포스트 코로나와 태권도 문화에 대한 특성을 가진 요소들에 대해 구조화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와 태권도 문화에 대한 구성요소들을 뚜렷하게 선정하여 각 관계들을 분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와 태권도 문화에 대해 대표할 수 있는 표제어를 제시하기 위해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귀납적 범주분석은 수집되어진 자료에 대한 점진적으로 추상적 정보 단위로 조직하여 위계에 따라서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귀납적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표관적 주제 체계를 구축해서 정리 될 때 까지 기초 자료에 바탕하여 수행하는 작업들이 포함된다(Creswell, 2015).

본 연구를 위한 귀납적 범주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수집된 문헌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와 태권도 문화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전사하였다. 전사 한 자료에 대해 연구주제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자료를 수정하고 이 과정에서 누락되어 기피되어진 새로운 주제들을 추가하여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원자료 추출이 후 중복된 자료를 추출하고 분류하여 핵심어를 약호화(coding)하여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 되어진 결과를 토대로 내용적 일치성을 위해 도출하였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과 보완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2. 조사 연구

본 연구에 따른 문헌과 이론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에 다소 주관적 해석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자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태권도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정책 방안의 범주와 구성 요소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해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	75.0
	여성	1	25.0
태권도 단	7~8단	3	75.0
	9단	1	25.0

2) 심층 면담

면담은 질적 연구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자료의 수집 형태다.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원로와 대한태권도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진 태권도장 운영을 7년이상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을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 윤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사전에 동의를 구한 뒤 면담에 대해 녹음하였으며 이후 전사를 통해 기록하였다.

면담자 20명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이후 선정에 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무작위 예비뽑기로 선정된 4명으로 하였다.

3. 연구의 진실성

1) 삼각검증법

삼각검증 방법은 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하나의 방법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점이나 판단에 따른 오류를 보완하고자 상이한 두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연구자들의 생각, 다양한 이론들과 방법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심층면담과 참여자의 관찰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문헌을 사용하였으며, 태권도를 주제로 한 학술 연구 자료(학위논문, 학회지 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본 과정 진행 중 태권도 중심의 기술서, 지도법 등 다양한 형태의 주제 차이에 대해 분류하여 교차한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데 중점하였다. 또한 태권

도 관련 단어를 구분하여 의미하는 바와 해석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정리하였다.

2) 반성적 주관성

본 연구자는 태권도 수련을 전공하고 수련경험이 있어 태권도에 대한 직접 체험의 지식과 경험, 이론적 지식이 충분하여 관련 문헌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 때문에 편향되어진 견해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왜곡된 정보로 해석하는 단점을 인지하였다. 이에 결과해석의 주관성을 높이고 완성도와 진실성을 높이하고자 해석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문헌적 연구의 비교 사항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 대상자 선정에서는 본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다수의 대상자 선정 이후 무작위 체비뽑기를 이용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면담자 선정에 따른 주관성 개입을 최소화 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성을 준수하기 위해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5)이 제시한 내용에 근거해 윤리성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적 가치방안에 대한 탐구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태권도장 운영 및 현장의 방법들과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찾아가는 방안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정리한 내용과 심층면담을 통해 현장 지도자 및 전문가들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태권도 교육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태권도장 및 태권도 문화적 가치 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변화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코로나 시대에 맞춘 다양한 선행 연구들과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의 기본이 되는 개념을 나열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행본, 학술연구 자료 및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단어에 태권도를 포함하여 단어들을 도출하여 용어를 범주화 하였다.

1) 코로나 태권도에 대한 요소

코로나 태권도에 대한 단어를 통한 범주화를 통해 코로나에 따른 태권도에 관련 인식과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태권도, 코로나 단어를 통한 단어 범주화

취소, 대응, 피해, 휴관, 감염병, 사상초유, 집단감염, 경제악화, 대회취소,
 장애물, 재양, 방해꾼, 보도, 방역, 한계, 훈련취소, 개인운동, 개별수련,
 비대면수련, 비대면대회, 언택트, 온라인대회, 보조금, 지원금, 과학방역, 접종

범주화에 따른 단어들은 대체로 부정적 단어들이 대부분이고 태권도 대회와 관련하여서는 취소, 온라인대회, 비대면대회, 훈련취소, 대회취소 등의 형태로 조사되었으며, 태권도장 지도자들을 우려하면서 보조금, 지원금, 휴관 등으로 조사가 되었다.

태권도장은 태권도를 지탱해주는 풀뿌리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존재적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중요성을 인지하게 해주는 시기이기도 했으며, 실제 태권도 관련 기관(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각 시도별 태권도협회)들이 태권도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에 우선 하여 태권도장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2) 포스트 코로나 태권도에 대한 요소

포스트 코로나 태권도에 대한 단어를 통한 범주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태권도에 관련 인식과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태권도, 포스트 코로나 단어를 통한 단어 범주화

온라인대회, 개인연습, 회생, 회복, 극복, 변화, 새로움, 격려, 시작, 도전,

범주화에 따른 단어들은 대체로 부정적 단어들이 대부분이고 태권도 대회와 관련하여서는 취소, 온라인대회, 비대면대회, 훈련취소, 대회취소 등의 형태로 조사되었으며, 태권도장 지도자들을 우려하면서 보조금, 지원금, 휴관 등으로 조사가 되었다.

태권도장은 태권도를 지탱해주는 풀뿌리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존재적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중요성을 인지하게 해주는 시기이기도 했으며, 실제 태권도 관련 기관(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각 시도별 태권도협회)들이 태권도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에 우선시 하여 태권도장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3) 태권도 문화에 대한 요소

포스트 코로나 태권도에 대한 단어를 통한 범주화를 통해 태권도 문화에 따른 태권도에 관련 인식과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태권도 문화 단어를 통한 단어 범주화

국제관계, 라운드 로빈시스템, 올림픽, 레저, 레저, 레크레이션, 리그전, 리그제, 리더십, 리더십유형, 리듬미, 마당, 마사지, 마우스피스, 마이오글로빈, 마찰, 마케팅요인, 마크, 막기, 막기틀, 모로세움, 선택, 세계태권도한마당, 수도권, 수련과정, 수련동기, 수련론, 수련만족, 수련목, 수련몰입, 수련문화, 수련방법, 수련장비, 수련지속, 수련집단, 수련프로그램, 수련형태, 수련환경, 수련활동, 수련효과, 수립단계, 트레이너, 트레이닝, 특기적성, 특성불안, 특수, 특수겨루기, 특수동작, 특수막기, 특수성, 특수품, 특수품막기, 특징, 틀, 팀, 팀체제, 파견, 파악, 파워, 판단력, 판매, 표결, 표기요령, 표적막기, 표준, 표출, 품, 품격, 품계제도, 품목, 품바뛰, 품새, 품새교본, 품새대회, 품새동작, 품새문화, 품새선, 품새선수, 품새설명, 품새수련, 품새심판, 품새제정위원

조사되어진 단어들은 대체로 기술의 명칭과 스포츠 용어, 경기규칙, 태권도 용어, 프로그램 소개, 심판 판정, 품새명칭 등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최종적 태권도 문화에 대한 요소들로는 총 2,069 건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태권도 문화적 용어는 일반적 태권도 수련 및 학문적 접근을 모두 포함하면서 확장되어진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나혜(2018)는 태권도에 대한 기본적 공간의 도장의 경우 체육관으로 지칭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데 불교 용어로 도(道)를 실행한다는 의미로 심신 수양을 위한 신체적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하여 수련을 행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다양한 운동종목(유도, 검도 등)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태권도장, 수련장, 체육관 등의 동일 공간에 대한 다른 표현들은 태권도 무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혼돈을 초래할 수 있어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태권도 지도자라 함은 태권도 겨루기 감독 및 코치, 태권도장 사범, 관장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일반적 스포츠 목적의 지도자 의미와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있다.

태권도를 통해 하나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인한 구분의 모호함은 가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V.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문화

1. 태권도 문화 변천과정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한 변천과정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세부적 요인들로 구분되었다.

1) 정신문화

태권도 정신문화는 가치적 문화와 규범적 문화로 범주화가 되었으며, 태극기나 태권도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인 형태로 태권도에 대한 수단과 도덕적 관념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태권도의 가치적 문화에 대해 초기에는 무예적 특징을 강조되어져 왔으며, 전통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자 신라시대의 화랑도 정신을 도입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후 태권도 관들이 통합되어지면서 기관으로써 가치로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진 이후는 겨루기 종목이 부각되어지면서 빠르고 강한 스포츠적 가치가 강조되어진다.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무도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나 제도권에서는 태권도 보급의 활성화가 우선이었기에 스포츠적 가치관에 치우쳐져 확대되어진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최근의 태권도의 기본정신에서 동양적 무예정식에 입각한 인사예절이나 사람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시되어지는 예절 등의 관습이 강조되어 지고 있으며 인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다. 태권도와 관련되어진 기관(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등의 운영이나 연수 및 규칙들의 다수의 수정이 이루어지며 체계화 되어졌다. 이에 따른 기본적 규칙에서는 태권도의 무예와 전통을 지키

는 것은 가장 밑바탕이 되어 진행된 것이다.

태권도 겨루기에 관해서는 경기규칙을 통한 올림픽 종목 지정에 따른 경기화에 따른 규칙의 명확화 등을 통해 간편화와 화려함을 위해 규칙이 변화되어지고 있다. 품새 또한 경기화가 이루어지며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경기화의 따른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활성화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 태권도 가치문화

태권도의 가치문화는 의미나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태권도 존재에 대해 정당화하거나 문화로써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태권도를 정의한다고 했다(김나혜, 2018).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바람직하거나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평가 되어질 때 활용되는 개념이며, 인간의 삶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천할 때 삶에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가치를 일반적으로는 다른 방법들 보다 더 좋거나 값어치가 있는 다양한 상황과 사태와 행동에 대한 신념이라고 한다면 가치는 인생에서 긍정적 영역과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행동에 부여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움직이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기에 의도와 목적을 더해 인간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가치와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으나(임철진, 1994), 가치는 그 자체로써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담아줄 대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나혜, 2018). 태권도 교육에 있어서 교육적 가치를 더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인사질하는 행동이 예절 바른행동이라는 가치를 태권도 수련참여자들의 행위에서 표현되어 태권도 수련에 대한 가치가 얻어지는 것이다(김석련, 2004).

태권도를 철학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으로는 오랜 수련의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신념, 가치, 문화체계 등의 객관적인 정신세계를 의미하며(김영선, 송형석, 2015), 태권도 정신은 사상과 정의와 함께 강함 등

의 기술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 정신이 추구해나가는 가치는 태권도 수련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과 정당한 경쟁이라는 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권도 정신을 처음 언급했던 최홍희(1959)는 예의와 엄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5대 정신으로 태권도를 대표한다고 하였으며 이런 전통적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현재까지도 태권도의 5대 정신으로 강조되고 수련상황에서 지도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첫째, 태권도에는 선수(先手)가 없으며, 둘째는 예의, 셋째는 애국심, 넷째는 인내, 다섯째는 정의와 인이라고 주장하였다(곽정현, 조성균, 2016). 이후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지면서 태권도장의 중심으로 공통된 정신을 제시하였다.

국기원은 태권도정신의 개념에 대해 수련을 통한 함양가능한 올바른 인간 행동의 바탕이면서 중심이 되는 수련의 목표라고 정의하였다(국기원, 1987; 국기원, 2005).

가치중립적 태권도 기술과 기술의 습득과정으로 길러지는 심리적 용도를 정정해주는 규범이 태권도의 정신이라고 하였다(송형석, 2012).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 정신에 대한 태권도 참여자들과 학자들이 정리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정신수양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통적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게 태권도 정신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면서 변화해가고 있지만 공감을 얼마나 얻으면서 진행되어지는 지는 항상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2) 태권도 규범문화의 변천

태권도 규범문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의 지침과 방식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적 행동 및 태도가 아닌 스포츠맨십과 같은 도덕적 규범에 근거한 경기규칙과 같이 제도적 기준 안에서 공통적으로 정해지는 규약이며,

태권도 수련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인사예절 및 선후배간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이 이러한 규정과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 기준 안에서 관습이 포함 될 수 있기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태권도에 대한 규범적 제도의 문화는 태권도 관련 법적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규칙, 심사규칙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 경기의 변천사로 따지면 1950년대부터 9개관으로 구분되어졌던 시기부터 대한태권도협회 주관으로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규정이 정해지면서 안정적인 규칙을 생성하게 되었다.

태권도 경기의 올림픽 지정은 이러한 규정의 정리가 지속적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규정 안에서 재미와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 다양한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 중 전자호구를 사용하면서 판정의 신뢰도와 경기의 다양한 기술 변화에서도 영향을 주었다.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방어 시간의 제한 및 경기장 크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들을 추진하고 정비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최근들어 태권도 품세의 국제대회 추진을 위한 규정 정비 및 체계화를 비롯해 태권도 시범 종목에 대한 규칙화와 전문 심판 제도 정비를 통한 세부 종목들의 경기화와 전문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진행으로 겨루기, 품새, 시범의 규범화와 수련형태의 변화가 다양한 수련방법을 제시하고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 물질문화

(1) 태권도 행동적 문화

태권도 행동적 문화는 태권도에 대한 가치적 문화를 기반으로 규범적 문화

의 바탕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태권도의 기술, 조직, 수련 등을 의미한다.

태권도 기술에 대한 의미는 태권도 본연의 모습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

태권도 행동적 문화는 신체를 물질에 비해 하위로 인식하면서 철학적 관점에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중 어느 분류에 포함되어 실행되어지는 지는 관점에 따라 달리질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 움직임은 주변 환경적 요소의 물질문화의 요소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생각과 정신적 요소에 의해 변화되어지고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상으로써 해석한다면 행동적 문화 요소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동작의 수련과 역할 등 다양한 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태권도 동작에서만 수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한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태권도 만의 행동적 문화 가치는 태권도 동작의 수련과 수련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요인의 변화들에서 의미를 찾고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권도 옆차기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술적 동작 수련에서 완성도와 수련과정에 대해서 정신적, 물질적 보상 요인들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태권도는 기술을 수련하고 지속적으로 익히면서 단련되어지는 것으로 수양한다는 동양적 의미도 포함되어지는데 이러한 의미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태권도 기술문화의 변천

태권도 기술의 전체적 방법에 대한 체계의 연결은 단순함안에 모든 동작의 원리와 기법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이창후, 2003), 막기, 차기, 지르기 등의 태권도 기술과 기본 기술, 보조기술과 방어부위별 공격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목적을 갖는다.

태권도 수련에서 기본동작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자세로 수련을 하게 되면 바로잡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교정하기 위해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련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진다. 처음 시작할 때 바른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련 참여자는 언제나 올바른 자세로 연습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태권도 수련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세에 대한 수련과 태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올바른 자세에 대한 수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도입해야 한다. 기본기술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결국 태권도 기술에 대한 오랜 수련참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태권도 수련은 신체의 작고 큰 기관(근육 등)을 사용하여 아주 작은 목표를 향해 지르기, 치기, 찌르기, 차기 기술로 상대를 공격하고 쓰러트리거나 상대방의 기술에 대해 방어하여 막아 내는 것이며(임신자, 2009), 태권도 각 동작의 독립적 움직임이 모여지는 것이 태권도 기술이라고 하였다(국기원, 2012). 태권도 기술은 공격 및 방어의 목표를 기술의 복합적 변화에 의해 다양한 상황에서 무궁무진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경훈, 빙원철, 2009).

태권도 기술의 수련에서 기초부터 시작하고 집중하는 것은 결국 나의 동작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의 것에서 다양한 품세의 구성요소가 발생되어지며 가상의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혼자만의 수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수련에서 실전 호신술로 연결시켜 연습하는 것이 겨루기라고 볼 수도 있다. 태권도 경기기술에 대해서는 결국 “나의 것”에서 반복된 수련으로 자기화 되어지는 과정으로 기법의 차이와 기술의 개발과 발전들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발전은 긍정적으로는 경기규칙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규칙의 개정도 이루어진다.

감염병 상황은 이러한 경기규칙과 기술에서 평가방법들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빠른 적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각 기관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

던 상황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수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② 태권도 수련문화의 변천

태권도 수련문화는 태권도를 연습하거나 훈련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태권도 기술을 익히고자 수련하는 과정에 대해 신체적 단련과 마음의 수양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과정의 진행은 결국 태권도 수련을 가장 처음에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태권도장 수련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태권도 수련이라함은 기술을 익히는 신체적 수련과 정신적 수양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다.

태권도 수련 과정은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시범 등으로 구분되어 경기화 되어지고 있으면서 각 세부종목의 특성에 따라 기술의 기법들이 달라지고 있어 수련체계 또한 분화되어지면서 다른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가장 처음 태권도가 제도화 되어지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기관의 정리와 유지가 중심이 되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 변화는 각 태권도장들에서 시작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운영의 영향도 있었지만 태권도에 흥미를 더하고자 태권체조를 또는 태권도장에서 영어학습을 가미했던 태권영어나 태권줄넘기 등의 수련방식 변화들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태권도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될 것이며 변화 되는 과정에 대해 부정하기보다는 적절한 흡수를 통해 적절한 자기화를 통해 수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권도는 이제 대학에서의 입시를 위한 운동과 건강을 위한 수련, 사회성 발전을 위한 수련, 품새를 전문으로 하는 도장,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장 등 다양한 방법의 수련방향을 제시하면서 특색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러한 특색에서 가장 중요해야 할 것은 “태권도”이다. 태권도의 본 가치와 수련의 최종적 의미는 같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것이다. 이러한 가치적 이해

와 의미가 잘못 해석되거나 이해하게 된다면 태권도의 방향성은 더욱 의미가 희석될 것이고 이에 따라 태권도는 더욱 방향성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태권도 전문서적과 관련 교육들이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방향성 제시는 태권도를 보급하는 기관들이 책임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스승에게 배워서 익혔던 과정들이 이제는 기관들의 교육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수련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다. 수련과정의 변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수련방법에 대한 정의가 과거의 정의로 가능할지가 의문시 되어질 수 있으나 결국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과거의 원론적 수련방법의 수행과 강조를 통해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③ 태권도 예식문화의 변천

태권도의 예식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수련과정에서 구분되어지는 “급” 과 “품(단)” 의 개념으로 심사의 절차와 자격 취득 상황 등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는 예(禮)를 기반으로한 절차를 이루게 된다. 태권도 수련에서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내는 실천 과정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예법이 생성되고 실천되는 곳이다. 예 라 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 관점의 해석보다는 예 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현재도 지향 되어지면서 수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장에서 급과 단을 구분하여 예를 중시하면서 존중하는 것은 취득과정과 수련과정을 인정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 고단자 심사를 비롯한 보다 높은 태권도 “단” 을 취득한 경우를 인정하는 것도 예를 지키고 인정하는 것이다.

태권도 예식은 태권도 수련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수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배우게 되는 입문 및 심사절차 등의 다양한 의식 절차와 행사를 의

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국기원이나 태권도 관련 단체에서도 이를 따르게 하면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고 있다. 수련과정에서 예식 과정을 거치면서 “예”에 대해 더욱 집중해서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무예적 수련에서 필요한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닦는 예식이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예식인 것이다.

태권도 수련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이며 일반적인 예식은 심사과정이다. 심사과정 중 시작 전 모든 참가자가 국민의례와 묵념 및 국기에 대한 맹세 등 절차적 예식을 따르게 되고 심사를 치르고 마친 이후 단체 사진 촬영 및 인사를 하는 과정으로 마무리 되어지는게 일반적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간을 빼앗으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일까?

현대적 관점의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면 해석이 부정적 방식으로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경험했던 선배 수련자들에 대해 알게 되고 이러한 예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예(禮)”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는 세계의 다양한 수련생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태권도 심사과정은 우리보다 더욱 엄격하기도 하고 예식을 더욱 중요하게 준비한다. 동양사상의 “예(禮)”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우리나라 심사처럼 대규모 심사보다는 소규모로 인정하면서 수련의 과정과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식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태권도 심사 중 무릎을 꿇고 준비하는 모습, 스스로 격파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스스로 수련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예식이 심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예식을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엄숙하면서도 준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미국 태구너도장에서의 심사예식은 다른 운동종목 중 검도에서도 나타난다. 종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예식을 진행하는 주요 목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식을 어디 문화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 종교적 관점

과 태권도장의 관훈적 의미에 따라 변형되어지면서 실행된다. 예식을 통해 철학적 의미의 수련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예식은 무의미한 절차적 번거로움일 수 있으나 이러한 예식에서도 역사가 존재하며 이러한 절차의 변화를 통해서도 다양한 예를 배우게 되는 것으로 수련과정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④ 태권도 역할문화의 변천

태권도 역할문화는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 인물들이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한 것으로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각 단체는 시대적 흐름과 태권도 가치관에 따라 역할이 수행되어져 왔으며, 역할에 대해서는 지위와 위치와 신분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 태권도에서 지위분화는 수련생, 사범, 관장, 기관 임원, 심판 등으로 지위에 따른 역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각 계층의 목적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행동 및 계층별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태권도 역할문화의 변천과정에서 태권도 수련의 인구적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야 하는 것이다. 수련생들의 특성 중 아동, 성인, 장애인, 노인,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지며, 참여 목적이 흥미, 경기참여, 입시 등인지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어진다. 또한, 지도자와의 관계 등으로 역할이 달리 구분된다. 동호회와 연합회등의 태권도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이는 태권도 겨루기, 품새, 시범의 종목별 경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련과정의 특성이 달라지며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등은 태권도의 하위문화에 대해 논의하며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 태권도 하위문화 중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태권도장에 따른 구분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진행되어지는 변천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태권도장의 9개관 구분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의 통합 과정 이에 따른 각 태권도 관련기관의 담당역할의 갈등 등이 술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태권도

를 처음 수련하게 해주는 태권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기관들에 대해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관점의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태권도장이라는 구심점이 되는 기관이 모든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대신하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장의 역할이 모이고 연합하여 생성되고 만들어진 기관이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할에 대한 구분보다는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강화된 협력 역할 안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변하고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태권도 역할문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는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방안을 다양하게 안내해주어 태권도 관련 지도자 및 기관 운영자들이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론은 앞으로의 실행과 실천으로 또 변화되어지고 더욱 안정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⑤ 태권도 용구문화의 변천

태권도에서 사용되어지는 용구는 보호장비와 매트, 타격보조물들이 있으며 대표적 상징물로는 태권도복이 있다. 태권도 용구의 변화는 수련에 참여하는 문화와 경기가 이루어지는 문화에 따라 변화되어졌다. 태권도 용구의 변화에서 과학적 경향과 생활의 편의성 등은 지속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항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브라달은 보호장비의 호구와 헤드기어, 골격보호대(팔, 다리), 살보대 등이 발달하였으며 경기가 이루어지는 매트소재의 변화들도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물론 발전하는 과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겨루기 용품은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우선시 되었는데 이는 태권도 경기의 스포츠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이 결국

상대방에 대한 강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부상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화 되어진 경기를 위해서는 선수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태권도 용구는 이러한 요구를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적용시켜 왔다. 현재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 지속적 유지는 이러한 용구적 변화와 적용도 분명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현재는 태권도 수련프로그램의 혁신적 변화들도 도입되어지고 있다. 실제 VR, 자료 및 3D 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용구는 도복이다. 당연히 상징성도 강하고 의미도 다양하게 부여되어진다. 조선시대 한복저고리의 옷고름이 띠를 대신하게 된 가무복이나 관복, 전투복 등이 관직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무기를 빼용하기 위해서 띠를 사용하였으나 오늘날 바지의 혁띠로 변형되어진 것이다(안용규, 2000). 도복이 유급자, 유단자를 구분하듯 띠도 유급자, 유단자를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태권도 수련에 따른 엄격한 질서 요구는 결국 띠의 색상의 차이로 권위와 상해 관계를 구분하여 나타낸다(이경명, 2002). 태권도 수련에 따른 다양한 요인들의 변천과정 중에는 결국 현재의 태권도의 발전방향에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 제시는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감염병 상황에 따른 큰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2.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태권도 문화의 변화 사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태권도 문화는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다양한 콘텐츠들과의 융합과 생존을 위한 변화들을 이루어갔다.

<그림 1>처럼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졌으며, 태권도 역시 이를 적용하고 더욱 확대 재생산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체육회 TV(2020.04.29.)

서울경제(2021)

그림 1. 비대면 운동 적용

태권도 운동 프로그램을 비롯한 <그림 2>와 같이 온라인 대회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운영되는 기념행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시범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로 진행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비대면 상황의 문화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편하게 이루어지며, 적극적으로 참여가능한 방법들이 도입되면서 편한 선택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온라인 대회 및 캠페인

<그림 3>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상 현실에서 사람이 만나면서 태권도 행사를 진행했던 사례로써 참여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림 3. 메타버스 수료식

VI.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현장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가치 방안 심층면담

본 연구를 위한 태권도 문화가치 방안은 최종적으로 태권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실적 상황과 내용을 알아보고자 인터뷰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AAA와 진행한 심층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시기 태권도장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아이들이 빠지다 보니까 수입적인 것들도 그리고 또 자유적으로 아이들과 몸으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죠”

1-1. 일단 애들이 빠졌던 것들은 어느정도나? 기존이랑 비교한다면?

“기존하고 비교한다면 그래도 복구는 되었지만 부모님들이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 좋아하세요. 숨 막힐 거 같다는 근데 이제 좀 이게 코로나가 길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해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그래서 거의 한 60~70%로는 복구된 거 같아요. 100%로까지는 안 되고”

2. 코로나 이후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비대면 수업, 정원제 수업)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선수층을 키우던 저희 도장에서는 아이들이 흥

미를 잃어가지고 시합을 못 나가기 때문에 태권도의 다른 방법을 좀 많이 도입했죠 그래서 태권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겨루기 품새만 하다가 이제 시범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갖고 음악에 맞춰서 즐길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업도 정원제 수업 그리고 분리형 수업, 1,2층로 나눠서 수업을 했어요 ”

3. 코로나 이후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보여줘야 이게 관심도 있고 발전이 있으니까 시범적인 그게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 가치로는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겨루기만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4.이제 지금 태권도가 어찌 보면 시범쪽이 분위기 상으로는 많이 변경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빚대어서 태권도가 기술적인 문화들이 변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문화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

“네 태권도만 그니깐 할 때 그니까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통 태권도가 아니라 익스트림과 마샬아츠가 합쳐져서 퍼포먼스 식으로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4-1. 코로나로 빚대어서 라기 보다는 지금 트렌드로도 바라 봐 줄 수 있는 거잖아 지금은

“네 그렇죠.”

5.태권도 용품들에 대한 변화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장비들이 코로나로 인해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건지? 혹시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지?

“장비는 이제 도장하는 입장에는 원래 개인장비를 구입하라고 안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인장비를 구입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아예 몸에 닿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걸 시키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겨루기를 정말 많이 시키면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게 시킨다고 봐야죠 그래서 보호장비는 계속 소독해 주고 해야 그래서 변화는 된다고 해도 그게 안전성 때문에 그게 변화가 될까요.”

6.태권도를 통한 정신문화가 코로나 이후 변화될 것인가? 조금 난해하긴 할텐데 예를 들어서 예의라든지 태권도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겠는지? (예의, 동양적 사상 등)

“크게 공감이 안 된다.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 같고 코로나로도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7.태권도를 통한 수련문화가 코로나 이후 변화 될 것인가?

(훈련방법, 수련 프로그램 등)

“그렇죠 홈트레이닝도 시작 되었고 또는 이제 그룹식으로 정원제 수업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심했을 때에는 같은 학년으로만 묶어서 수업을 했어요 오늘은 뭐 월요일 1시는 일학년만 그리고 화요일은 2학년만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줌으로도 수업을 하고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많이 했죠.”

7-1.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도변화가 됐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들이다?

“네”

8.태권도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 문화로써의 역할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로써 역할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국기, 시범문화)

“아니요 크게 공감 안 되고, 지금 시점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 같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태권도장 운영에 따른 어려움은 상당히 컸으면 이로 인한 수련 프로그램의 제한이 힘들었으며, 현재도 기존 인원의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의 변화들은 다소 있었으나 문화적 가치와 역할은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장 어려운 것은 태권도 수련에서 코로나로 인해 보호장비의 개인구매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호장비가 필요한 겨루기 수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BBB와 진행한 심층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코로나 시기 태권도장 운영의 가장 어려웠던 점?

(수입,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 교육 부재등)

“코로나 시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요 일단은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태권도를 안 보내거나, 보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작년까진 기존 2주는 의무적으로 격리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된 아이들의 2주의 교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러한 교육적인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구요, 지금은 그래도 격리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힘들었지만 뭐 실질적으로 보면 한 두달만 정도만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 태권도장 아이들이 인원수가 크게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2주식 격리를 당할 때 비한 교육비 예를 들어 한달에 50명이 2주가 걸려서 격리를 당했다면 50명에 대한 교육비 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일단은 경제적으로 수입적인 부분이 좀 타격이 받아서 일단 운영상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써 다른 도장들은 이거 보다 더 어렵게 막 학생들이 더 많이 빠져 가지고 아님 돌아 오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은 이제 태권도장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본인의 도장도 좀 이렇게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좀 변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인 거 같아요 코로나 시기 때 음식점들을 보며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줄 서서 먹는 집은 계속 줄 서서 먹거든요 안 되는 곳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태권도장을 한 번 되짚어 봤어요. 되짚어 봤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자리가 좋아서 태권도를 그냥 부모님이 그냥 보냈던 부분들, 보육적인 부분에서 보냈던 부분인 도장들은 실상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학교가 뭐 안 간다는 건가 이러면 같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내실을 지금까지 잘 만들었던 도장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크게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다져놔야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도 믿고 보낼 수 있는 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장, 사범분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믿게 만들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막 도장이 나밖에 없고 독점이다 보니까 막 보내주는 거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것만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은 150명이 다녀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도진하고 신뢰를 갖고 태권도장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이런 내실을 다져 놓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 코로나 이후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생각은?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제 생각은 일단은 뭐 우리가 국기원 심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태권도장에서 많이 지출하고 거기서 이제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제 예산을 편중해가지고 이제 태권도라는 종목을 돌리는 거잖아요 경영을 하는 입장인데,

제일 큰 거에 수입은 태권도장에서 발생하는 승품단 비가 제일 가장 크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문화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태권도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범들을 위한 교육, 태권도장 관장에 대한 교육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일상 관장들은 솔직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법을 잘 모르거든요 이 법적인 부분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태권도장은 면세업이지만 그냥 순수하게 맡기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국라든가 국기원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금 활성화 시켜주고 사범들에 대한 교육의 폭을 넓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게 뭐냐면 그냥 내가 심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하나 자격증을 위한 교육 하나 사범 연수라든지 뭐 심사 평가 위원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들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무리 뭐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한들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에 불과한데 이거 또한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해버렸거든요 이런 교육들을 해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좀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4.코로나 이후 태권도 기술 문화는 변형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다른 운동 같은 경우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온라인이나 비대면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요 거기는 이론적인 걸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태권도는 실질적으로 단체 운동이고 아이들이 기능적인걸 배우는 것보다 사회성을 많이 배우는 것 때문에 태권도장을 보내거든요 이 친구, 저 친구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수영이나 같이 이러한 기능적인 거를 크게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해서 기술적 문화가 갑자기 변형되고 영어 같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뀐다거나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은 태권도장은 거리가 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5.코로나 이후 태권도 용품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보호장비, 수련장비 등)

“저는 이 변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신종플루가 나오고 뭐 나오고 했을 때 태권도장에 제일 많이 설치했던 게 손소독기 설치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거라도 있으면 뭐가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걸 시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두달정도 지나고 세네달 정도 지나면, 세대적으로 있는 이런 시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 시기가 지나면 이 순간은 또 금방 희석이 되거든요 코로나도 뭐 작년하고 제작년하고 지금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이제 내년 말만 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강요되고 부각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장비가 그때만 필요하지 시간이 어느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런 것들도 크게 퇴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 같아요.”

6.태권도를 통한 정신문화가 코로나 이후 변화 될 것인가?

(예의, 동양적 사상등)

“코로나 때문에 변경된다는 것보다는 교육이라는 건 시기적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아버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권위적인 거, 사범 관장에 대한 스승에 대한 권위적인 부분들 근데 지금은 함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뢰를 쌓고 같이 가는 분위기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발전된다고 보면 그 교육적인 발전에 맞춰서 사범들 관장들도 같이 발전 해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물음) 일단 정신 문화적인 것도 그렇지만 교육적인 부분이 변화가 될 수 있을 거 같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교육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니

까”

7.태권도를 통한 수련문화가 코로나 이후 변화 될 것인가? (훈련방법, 수련 프로그램 등)

“코로나 이후에 계속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기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아 무슨 뭐 병이 많이 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 노하우는 좋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체 운동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 체력 훈련이라든가 태권도 훈련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발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훈련 방법이라든가 수련 프로그램이 이번으로 확 바뀌지 않겠지만 팬데믹 상황이 또 온다고 하면 지금 때 같이 팬데믹 상황에 맞는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완화되고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전의 수련 문화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시 물음) 이번에 보통 홈트를 시켜봤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수업을 시킬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과 호흡하는 거 없이 직접 그냥 운동 동작에 대해 설명 시켜줘야 했고 직접 본인이 하셨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깐 운동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뭐 본인이 또 이렇게 그만큼 보여줘야 됐던 것들이 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좀 조금 계속적으로 했어야 됐어서

”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은 줄넘기를 가지고 태권도 발차기를 세트에 상관없이 발차기 쳤어요 왜 마스크를 안 쓰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면 아이들이 호흡 문제라든가 과호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세트에 수라든가 세트에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에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운동량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런 운동량에 대한 훈련 방법, 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8.태권도는 코로나 이후 우리 문화로써의 역할 변화가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국기, 시범문화 등)

“저는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병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건강하고 면역체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잘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고 면역체계 이런 부분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쉽게 올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뭐 왔어도 내가 건강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신체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권도라는 운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운동 중에 하나긴 해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것은 심폐라든가 뭐 이런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태권도를 통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운동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태권도장의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프로그램과 부모님 수련생과의 신뢰가 잘 형성되어져 있다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태권도 문화적 가치 변화에 대해서는 태권도장의 활성화가 태권도 문화가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태권도 훈련 용품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며, 훈련방법의 변화도 크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데는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했다.

CCC와 진행한 심층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태권도장 운영의 가장 어려웠던 점?
(수입,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 교육 부재 등)

“그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인식 차이 그니깐 감염에 대한 위험성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장에 대한 깊이 그리고 집단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운동에 대한 부모님들에 두려움 때문에 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힘들었습니다. ”

2.그러면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좀 태권도장을 다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비대면 수업, 정원제 수업 등)

“태권도에 비대면 수업은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넓은 장소에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건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그건 안 맞는 거 같고 일단 정원제 수업을 진행 하고 그 다음에 감염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그 다음에 점점 이게 이제 있으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 들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아예 진짜로 그런 것들이 정원제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비대면 수업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여서 가능했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수업들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게 진행이 됐던 것 중에 만약에 하고 있는 도장들이 있으면 그 비대면이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죠 그러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거 보다는 대면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코로나를 탈피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방법으로 정원제 수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원제로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도장들 수익이 안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뭐 교육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감안 하셨는지?

“일단 교육비는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금씩은 올라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고 그 또 교육비뿐만 아니라 정원제가 됐을 경우

에는 쉽게 말해서 저희도 지도진들을 많이 쓸 수 없다는 거 그건 그게 또 아픔이 있겠죠?”

3.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이제 현재에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태권도 코로나 이후에 태권도 문화적 가치로써 또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태권도 자체가 우리나라 국기고 또 태권도라는 것은 겨루기뿐만 아니라 시범이라는 또 퍼포먼스에 대한게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문화적으로 창조하고 이용을 한다면 문화 행사라든지 각 지역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코로나 이후에 태권도 기술 문화는 변형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기술변화는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히 변화해야 하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거를 수 있는 것이 많이 걸렸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또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변화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태권도 용품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했었고 또 위생관리 차원에서 개인장비를 무조건 써라고도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코로나를 대처해왔는데 코로나 이후 태권도 용품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보호장비, 수련장비 등)

“아이들은 이미 지금 뭐 장비에 대한 것은 또 마스크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또 우리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태권도 하는 아이들도, 수련생들도 다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안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거 같고요 이것을 다만 좀 더 좋은 질에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 더더욱 좋겠죠?”

(다시 물음) 그러면 일단은 변화에 대한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는 모르겠나?

“네네 변화가 있으면 좋겠죠?”

6. 태권도를 통해서 정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에 대한 예의라든지 이런 동양적 사상이라든지 태권도 정신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이 또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게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게 다들 차단되었고 많은게 다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주면 의외로 더 태권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이라든지 예의 쪽으로 예절 범절이 좀 더 우리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7. 그리고 이건 이제 수련문화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 훈련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수련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거리를 좁혀서 했었고 좀 근거리에서 좀 하계끔 만든다는지 이렇게 좀 진행들을 하셔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홈트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일단 직접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도 부담도 됐었고 힘들음 좀 겪으셨는데 혹시 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지도진들이 가르켜 주고 또 그걸 기준에 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도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준에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좋은 방법들이 태어나왔기 때문에 계도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코로나 이후에 우리 문화로써 태권도가 뭐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라든지 뭐 이렇게 국기로써 표현되곤 하는데 태권도가 우리 문화로써의 좀 이렇게 역할 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태권도를 통해 우리 문화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마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 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도 높아지고 해서 더 문화 발전에 우리가 또 태권도를 통해서 이바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태권도장에서의 운동에 대한 두려움들이 운영하는데 가장 힘들었으며, 이후 정원제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비대면 수업은 제한사항이 많아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다만, 정원제 수업으로 전환 된다고 했을 때 수련생뿐만 아니라 지도진의 감소도 필요해서 또 다른 문제가 양상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태권도 문화는 시범을 통해 활성화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술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장비의 개인화는 긍정적 변화로써 더욱 질 좋은 제품들이 확대되길 기대했다.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이 장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태권도의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한 역할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DDD와 진행한 심층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시기 태권도장 좀 가장 어려웠던 상황들이 가장 어려웠던 상황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이 잘 안 나와서 수시로 좀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거의 한 100%로에서 거의 한 50%로에서 60%로 정도가 이렇게 (수련을 참여를 받는데) 모든 지도자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아이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수업 부분도 많이 못 들어오니까 아마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든 걸 느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면은 학생들이 좀 안 나왔었던 이유가 일단은 감염병이 좀 이렇게 우려되서 안 나왔었다고 가장 크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한 아이가 걸려 가지고 코로나의 확진이 되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그 아이에 그 중점을 보기 때문에 자기 아이한테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약간 회피하는 부분 그러니까 운동을 좀 쉬어라 한달이라다도 조금 쉬고 이렇게 수련을 해라 이렇게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3. 지금 이제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좀 이렇게 끝나고 난다는 이후의 상황이 된다고 하면 태권도장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일단은 수련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아가면서 아이들

이 더욱 더 흥미를 갖고 태권도 수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약간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그 뭐 하는 도장을 본다고 하시면은 좀 비대면인 수업들을 홈트처럼 좀 계속적으로 진행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계신 분들도 있으신 거 같고 아니면 뭐 수련생들을 좀 줄여가지고 정원제로 돌린다는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긴 하더라도요 혹시 이제 관장님 도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도 고민 하고 있는지 아님 다른 방법을 또 혹시 가지고 계신 특성 같은 게 있으신지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제 생각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좋은데 그 부에 아이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물리는 시간이 있고 또 안 물리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좀 아이들한테 체계적으로 수업 진행 방향을 좀 약간 다르게 병형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뭐 발차기라든지 품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태권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습니다.”

5. 이걸 이제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태권도가 좀 이렇게 문화적 가치로써 태권도의 가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권도가 조금 더 문화적으로써 더 가치 있게 활성화 될 수 있게?

“현재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태권도를 배우면서 우리나라 전통 이렇게 국기 하나인데 그걸 아이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프로그램을 좀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태권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련생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솔직히 시간적 여유도 있고 뭐 이렇게 여건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해결하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요즘 이제 티비에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홍보영상이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더 타이트 하게 약간 옛날 태권도 부분적인 것을 좀 홍보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6. 이제 코로나 이후에 태권도가 지금 기술 문화적인 부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발전된다고 그러면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시범들이 트렌드로 좀 바뀌기도 했고 태권도의 기술 문화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코로나 이후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것과 코로나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7. 지금 코로나 이후에 태권도 용품들이 뭐 예를 들자면은 겨루기 같은 경우는 개인 장비를 무조건 쓰게끔 한다든지 좀 이렇게 아이들이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생활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권도 용품들도 좀 여러 가지 형태들도 되어 왔는데 혹시 태권도 용품들도 코로나 이후에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크게 공감은 되지 않된다.”

8. 태권도를 통해 가지고 태권도의 정신문화 예를 들어서 예의라든지, 동양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코로나 이후에 또 이것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이 ”

(다시 물음) 그것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끼게끔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든다?

“네”

9. 태권도를 통한 수련방법, 수련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련 프로그램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방법들, 트레이닝 방법들 그것들이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생각해보신게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좀 약간 품새도 있지만 겨루기 부분적인게 시합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계기로 아이들이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겨루기 부분하고 품새 그 부분에서 좀 더 중점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대회 자체를 나갈 수 있게 도와주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

10. 코로나 이후에 우리 문화로써의 태권도의 역할 예를 들자면 국가 브랜드로써의 아님 국기라든지 아니면 시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네 있겠죠 왜 그러냐면 태권도 자체가 아까 말씀 드렸다싶이 홍보도 중요하고 티비에서나 한번씩 유튜브로 아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시범 보이는 게 세계연맹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유튜브로 보다 보면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동기가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아이들 입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면을 저희 지도자들은 좀 더 이제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좀 더 지도자들이 배우고 그걸 익혀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태권도장 운영은 휴관하는 수련생들도 있고 그로인한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었다.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향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방법이라고 하였다.

태권도 대회가 감염병 상황 중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품새와 겨루기 대회 참여를 독려한다면 태권도 프로그램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태권도의 문화적 역할은 광고 및 각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태권도에 대한 공연은 전문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동작들이므로 이러한 요구에 지도진들이 노력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VII. 결론 및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의 주제에 따른 단어의 범주화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태권도는 부정적 관점의 대해 나타났으며, 태권도 문화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태권도장에 대한 어려움과 태권도 관련 기관들(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진흥재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 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태권도에서 처음 등장한 요소들은 온라인 대회와 개인연습 방법, 온라인 교육 방법 등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형태에 대한 온라인 대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에 대한 요소들이 나타났다. 문화적 견해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근본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태권도장에 대한 안정성 유지가 태권도 문화라고 하였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문화에 대한 세부적 요인들에서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변천과정은 역사에서 기반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과거의 고전적 역할에 집중하고 지켜내야 한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 현장에서의 심층면담에서는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시기에 새로운 교육방법의 적용과 수련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원제 운영 등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적용할 시기라고 하였으며, 태권도가 품새, 겨루기, 시범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태권도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아직 안정되어지지 않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어 태권도 문화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할 의견들이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집과정을 통해 범주화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유원, 김이수(2008). 동양무예에 나타난 게이코와 가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44(3)**, 27-36.
- 강철(2020).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가? ‘격리 중 자기돌봄’ 과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한국철학회, 143**, 87-109.
- 곽정현, 조성균(2016). 태권도정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체육철학회, 24(4)**, 263-286.
- 국기원(1987). **국기 태권도교본**. 서울: 국기원
- 국기원(2005). **국기 태권도교본**. 서울: 국기원.
- 국기원(2006). **태권도 교본**. 서울: 오성출판사.
- 국기원(2011). **3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 교재**. 서울:국기원
- 국기원(2012). **태권도 기본 교재: 태권도와 사회과학**. 서울:국기원
- 국기원(2022). 국기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통계 및 정책자료. 국기원 품단 등록 및 응시자 현황(2022년 8월). 2017년 9월 19일 업로드 자료. <http://www.kukkiwon.or.kr/front/kor/information/report.actiocmd=View&seq=164&pageNum=1&searchKey=1&searchVal>.
- 국립국어원(2017).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권경상, 이종영(2015). 정부의 태권도 진흥정책과 시범문화의 변화. **한국체육학회, 54(4)**, 515-526.
- 김기석(2009). **태권도의 대중화를 위한 수련문화 재고**.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태권도 대학원.
- 김길평(2001). 태권도 수련형태와 돌입경험 및 무도 정신력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 15**, 311-322.
- 김나혜(2018). **태권도 문화의 변천과정 및 구조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동석(2020). [칼럼] “태권도장 집합금지에서 운영제한 조정해야”. 태권박스 미디어, 2022. 12. 21. <http://www.tkdbox.com/%EA%B9%80%EB%8F%99>

%EC%84%9D-%EC%B9%BC%EB%9F%BC-%ED%83%9C%EA%B6%8C%EB%8F
 %84%EC%9E%A5-%EC%84%A4%EB%AC%B8%EC%A1%B0%EC%82%AC-%EA
 %B2%B0%EA%B3%BC-%EC%82%AC%ED%9A%8C%EC%A0%81-%EA%B1%B0
 %EB%A6%AC%EB%91%90/

- 김동식(2005). **인문학적 문화 연구를 위하여**. 서울: 들린아침.
- 김복영(2017).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재현된 수학교사의 이미지.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21(1), 107-121.
- 김상순(1999). **태권도 지도자의 교육신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석련(2004). **태권도 수련의 가치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수완(2011). **미디어광고가 태권도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김수잔, 양성국(1997). **스포츠마케팅**. 서울: 대경출판사.
- 김수정, 최성배, 윤여탁(2012). 자본주의와 글로벌화 속에서 전통문화 태권도의 변용. **한국체육철학회**, 20(4), 71-85.
- 김영만(2011). 택견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화적 속성으로써 태권도 현대사. **한국체육철학회**, 19(4), 109-135.
- 김영선, 송형석(2015).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국기원 연구보고서.
- 김용섭(2020). 최지혜논문
- 김우주(2020). **신종 바이러스의 습격**. 서울: 반니.
- 김윤희(2020). (2020. 2. 18.). 31번 환자, 대구교회서 2번 예배 1월말엔 강남 다녀갔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088512020/>에서 2020년 5월 20일 인출.
- 김은철(2001). **태권도 체육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마케팅 전략**.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이수(2005). **한국의 신체문화, “몸담달”로의 접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이슬(2013). **영화로 살펴본 한국 태권도 문화의 변천과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정록(1986). **태권도 교범 III 유단자 품세**. 서울: 서림문화사.
- 김주연(2009). 태권도사(跆拳道史)속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한국체육학회, 48(2)**, 1-9.
- 김충렬(2014). **외국인 수련자의 태권도 문화인식이 한국의 국가이미지,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치조(1993). **스포츠마케팅**. 서울: 태근사.
- 김학덕(2001). **태권도의 스포츠화과정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 - 현대스포츠의 특성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현성(2008). **태권도장의 관계마케팅전략과 고객지향성이 도장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 김현중(202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가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골프 활동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홍식(2009). **현대 스포츠 문화의 서구적 기원**. 한국스포츠개발원.
<http://www.sportnest.kr/225>
- 대한체육회(2020). YouTube 대한체육회TV. <https://www.youtube.com/watch?v=apHF4cqkxds>
- 류병관(1997). **태권도 수련문화에 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8(2), 117-132.
- 모이세이 카간(2009). **문화철학**. 번역 이혜승. 서울: 지만지.
- 박만건(2003). **스포츠의 문화체계와 사회현상: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길(2012). **문화사회학적 시각으로 본 태권도의 역할**.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변청자(2008). **문화분석 방법으로서의 부르디외 문화사회학 연구 -문화장의 변동과 '문화기획'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보건복지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대응 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서동일(2008). 한국문화의 홍보를 위한 태권도의 가치. **한국스포츠리서치,18(6)**, 987-994.

- 서성원(2009). **태권도 숲을 거닐다**. 서울: 상아기획.
- 서울경제(2021). KT랜선에듀로 비대면 교육 받으세요. 서울경제신문 2021.09.3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O0XYRN4>
- 성환희(2017). 태권도, 2024년 파리까지 7회 연속 올림픽 종목. 2017년 9월 18일. 한
 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5a008511c8dd4e989ab1dc80c3c90273>.
- 세계태권도연수원(2005). **2급 태권도지도자연수교재**. 서울: 국기원 연수원.
- 손성도(2006). **태권도장의 효율적 운영요인과 경영전략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송형석(2012).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 20(1)**, 181-195.
- 송형석, 나채만(2011).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신종섭(2017). **태권도 세계화에 나타난 한국화 메커니즘: Gramsci의 헤게모니이론
 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심광현(2003). **이제, 문화교육이다**. 서울: 문화과학.
- 안용규(2000). **태권도 역사 정신 철학**. 서울: 21세기 교육사.
- 양진방(1999).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미간행 석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여건종(2000). 형성으로서의 문화. **문학동네, 7(4)**, 1-12.
- 연합뉴스(2017). 해변서 민소매 경기복 입고 얇! 태권도 비치선수권 5월 첫 선. 배
 진남 기자. 2017년 2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2/0200000000AKR20170222075500007.HTML?input=1195m>
- 오춘성, 문호준, 윤정욱, 양현석, 박중호(2008). **태권도 교육 총서**. 서울: 상아기획.
- 유기웅, 정중원, 김영석, 김한별(2015).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중판)**. 서울: 박영사.
- 유정애, 김선희(2007). 왜 스포츠 문화 교육인가?. **한국체육학회, 46(4)**, 169-181.
- 윤경우(2020). 코로나19로 촉진된 글로벌 대변혁과 중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중
 국지식네트워크, 5-79**.
- 윤근섭, 김영기(1994). **현대사회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이경명(2002). **태권도의 어제와 오늘**. 서울: 어문각.
- 이경명(2003). **태권도의 정신세계**. 서울: 상아기획.

- 이경명, 김철오(2004). **국기 태권도 무예요해**. 서울: 상아기획.
- 이경훈, 빙원철(2009). 태권도의 전통사상과 현대적 의미에 관한 고찰. **대한무도학회**, 11(2), 93-105.
- 이석주, 김정주(1997). 한국 스포츠문화의 진흥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6(1), 101-117.
- 이용환(2020). 3장 코로나19의 충격: 패더라디임 전환의 촉매, 선진화 정책 시리즈.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이은적(2020).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의 학교와 미술관 연계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62, 203-225.
- 이정은(2010). **관광목적지의 커뮤니케이션, 브랜드자산, 관계의 질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이종천(2001). **태권도 체육관에서 수련생 이탈 원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창후(2003). **태권도의 삼재 강유론**. 서울: 상아기획.
- 이천인(1998). **태권도장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임변장(1993).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 임신자(2009).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 기술의 체계정립과 실전성 모색. **한국체육학회**, 48(1), 9-19.
- 임일혁(2007). **태권도와 미학의 만남**. 서울: 레인보우북스.
- 임정수(2020). 포스트코로나, 미디어 산업의 변화, 한국소통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3-5.
- 임철진(1994). 스포츠 수행경험의 본질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33(2), 2057-2063.
- 장민호(2020). 대한태권도협회, 코로나19 피해 태권도장 지원 위해 ‘총력’. 무예신문, 2020. 08. 30. 검색. <http://m.mooye.net/a.html?uid=16720>.
- 전익기, 윤정욱, 양현석, 문광선, 홍일화(2016). **선택과 집중 태권도장 경영**. 서울: (주)와이북스.
- 정권혁(2021). **팬데믹 상황 시 태권도장의 위기관리 경영방안**. 미간행 미간행 박사

-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문섭(2020). 언론보도가 정부의 재난위기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정의권, 구본행(2003). 현대사회와 스포츠 문화의 구성체계에 관한 고찰. *체육연구*, 19, 19-36.
- 정창근(2001). 태권도 수련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철현(2005).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 서울경제경영.
- 조동진(1999). 스포츠 문화의 역할. *문화연구*, 2, 51-74.
- 조수동, 김주완, 이강화, 이윤아(2003). *문화의 이해*. 대구: 이문출판사.
- 조항용(2015). 태권도장의 교육적, 사회적 역할과 의미의 변화.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영렬(1988). *태권도 겨루기론*. 서울: 삼학출판사.
- 최홍희(1959). *태권도교본*. 서울: 성화문화사.
- 한광령(2001). *문명화과정으로서 태권도의 역사 사회학적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한창효(2004). *태권도 문화의 구조분석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허건식(2002). *동양무도의 문화적 해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허영준(2020).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 원 추가 지원 용자확대,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Cahapay, M. B.(2020). Rethinking Education in the New Normal Post-COVID-19Era : A Curriculum Studies Perspective. *Aquademia*, 4(2), ep20018
- Capener, Steven D.(1998). *동양 무도 수련관의 변천과 현대적 의미*. 미간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Chris Barker(2009). *The Sage Dictionary of Cultural Studies*.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역 이경숙, 정영희.
- Creswell, J. W.(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조홍식, 정

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 Donahue J. J.(1994). *Warrior Dreams: The Martial Arts and the American Imagination*. Connecticut & London. Bergin & Garvey.
- Jameson, F. (1974). *The prison-house of language: A critical account of structuralism and Russian formalism* (Vol.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nes, K., & Sharma, R.(2020). *Reimagining A Future for Online Learning in the Post-COVID Era*
- Nixon, H. L., & Frey, J. H.(1996). *A sociology of sport*. Wadsworth Publishing.
- Smith, F. B. (1973). *Radical Artisan, William James Linton, 1812-97*.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teven D. Capener.(1998). *동양무도 수련관의 변천과 현대적 의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Swingewood, A. (1998). *Cultural theory and the problem of modernity*. Bloomsbury Publishing.
- Sznaider, N. (2011). *Jewish memory and the cosmopolitan order*. Polity.
- Thompson, E. (1990). P.(1975) *Whigs and Hunters: The Origin of the Black Act*. London: Allen Lane.
- Thompson, J. B. (1990).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Polity).
- Tyler J. M.(2020). *Covid19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홍유진 옮김, 파주: 열린책들.
-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Vol. 2). J. Murray.
- Williams, R. (1958). *Culture is ordinary*.